朝鮮日報 夕刊 三十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人 方應謨

나치스絕對支持로 獨逸總選擧終了
卄九日밤까지의開票結果
政府支持者九八%

得意揚揚한 히總統

【伯林二十九日發同盟】獨逸國會의 總選擧는 二十九日午前五時를 期하야 獨逸全國各地一齊히 開始되엇다 一九三三年十一月十二日以後 三年間의 나치스政策을 批判할 總選擧인것만큼 獨逸國內는 異常한 緊張을 보이고 投票場인 各停車場前은 二十九日未明에 벌서 殺到한 나치스黨信奉者가 長蛇陣을 치고 時間이 오기를 기다리고잇스면서 熱心으로 히틀러靑年黨員이 萬歲를 指揮하엿다 投票는 二十九日午後六時로써 終了하엿는데 午後十時까지의 開票結果는 投票는 極히好成績으로 政府派는 九八、九三%의 多數를 占하엿다 卽

投票總數 四四、五〇一、六〇〇票
政府派 四四、二三七、九二四 (九八、九三%)
反政府派 二六三、六七六 (一、〇七%)

一方 나치스黨本部는 棄權者를 防止하기爲하야 모든 手段을 取하고잇다 特히 各地黨支部에 對하야 投票權者의 個別訪問을 命하고 病人은 自動車에 실고 投票場에 運搬하는等 必死의 努力을 傾注하엿다 伯林에서는 早朝부터 나치스 各隊는 示威行進을 開始하야 손에는 黨旗를 흔들면서『諸君의 投票는 히틀러總統에게』를 絕叫하고 繁華한 거리를 巡廻하고잇다 이에 對하야 當局의 徹底的彈壓에도 不拘하고 共産主義者의 決死的潛行運動이 活潑하야『共産黨은 健在』라고 朱書한 文字가 散見되는것도 나치스治下의 非常時選擧風景의 異常味를 彩色하고잇다 目下 市中은 平穩하고 何等 爭擾도업다

他國을犧牲하여까지 獨逸은發展하려나
總選擧後의新提案에制先하야
프랑당氏佛國立場闡明

【베제레이二十九日發電通】獨逸國民投票終了를 기다려 히틀러總統은 歐洲平和再建의 具體的新提案을 할터인데 이에압서 플랑당佛外相은 二十九日 베제레이(佛國)에서 如左한 演說을行하야 佛國의 立場을 闡明하엿다

우리는 獨逸과 平和商議를開始할수가잇다면 가장 欣快하게 여이는바인데 그것은 먼저 國際條約의 神聖이 維持되어 確固한 商議의 基礎가 確立되지안흐면 안된다 獨逸이 如何히 重要한 條約에調印하엿더라도 그條約을 獨逸國民의 死活의 權利란 名目下에 何時든지 破棄할 權利를 留保한다면 如斯한 條約이 무슨所用이냐 나는 獨逸國民에게 뭇고십다 諸君은 獨逸國民死活의 權利란 名目下에 假令他國을 犧牲하여서까지 發展하려는것인가 히틀러總統이 去三月七日 世界平和를 爲하야 新提案을 行하고 때를 가리하야 墺太利 丁抹의 슈레스위키、波蘭의 히레자의 나치스의 宣傳活動이倍加되어 체코슬로바키아、瑞西의 獨逸人關係의 나치스運動이 盛하게되는것은 무엇을 말하는것이냐 히틀러總統은 此等他國領土를 併合하야 此等獨逸人을 自國民中에 吸集할意肚를 果然 放棄하겟는가 이意肚를 放棄하지안코 世界平和를 말하는것은 虛僞도 甚하다고 하지안흘수업다 우리의 意見으로는 平和는 一體不可分으로 二國間의 相互援助만으로는 十分 保障할수업다 何故오하면 相互援助에依하는것은 어느때 破棄될는지 알수업고 다른것은 集團的安全保障機構와 對立하는일까지 잇슬수잇는 때문이다

事態重大化!
海峽再武裝과 聯盟側의見解

【쥬네브二十九日發同盟】獨逸政府의 로카르노條約破棄以來 土耳其政府가 一九二三年의 로잔느條約을 破棄하고 다다넬스海峽再武裝에 進出할 意肚라는報道가 자조 流布되어 聯盟側은 右報道에 憂慮의 비출보이고잇는데 二十九日午後 聯盟當局은 如左한見解를漏洩하엿다 獨逸政府의 라인宣言으로 歐洲政局은 極度의 混亂에 陷하엿는데 이 問題가 收拾되엇다 하더라도 土耳其 政府의 로잔느條約 破棄、다다넬스

蘇聯、아프가니스탄 不侵略條約延長
一九四六年까지有效

【莫斯科卄九日發同盟】一九三一年 蘇聯邦 아프가니스탄 兩政府間에 締結된 싸베트、아프가니스탄中立相互不可侵條約은 兩國政府代表間에 折衝한結果 十個年延長하기로 決定하야 二十九日 蘇聯外務人民委員部 크레친스키次長、아프가니스탄 王國外相무하메드氏는 本國政府를代表하야 右延長에 關한 議定書調印을了하엿다 右議定書調印으로 一九三一年條約은 一九四六年까지 延期되게되엇다

南京政府政權은 地方政權으로認定
有田大使、關東軍當局會見內容
對中政策에一大轉換

【新京二十八日發同盟】有田大使는 二十八日 關東軍首腦部와의 懇談會에서 軍의 對中政策에關하야 率直한 意見을 聽取한結果 深重한 感銘을 어든모양이므로 今後의 有田大使의 對中政策에 重大轉換을 招來할것이아닌가 期待되고잇다 關東軍當局의 披瀝한 對中見解는 如左하다

一、從來 日本政府의 對中外交는 南京政權만을 對象으로한 一方的의 것이엇스나 現在의 南京政府는 西南政權의 半獨立、冀察、冀東兩政權의 對立等으로 中央의威令은全혀 미치지안코 地方政權과 何等다름바업는 狀態가되는事實을 認識하고 對中政策을修正할必要가잇다

一、日本政府가 實質的으로中央政權으로서의 實力을 가지지아니한 南京政府를곳까지 唯一無二의 相對로하는때는 冀察、冀東等 新興政權은언제까지든지 脆弱한土臺上에서 北中의 平和的建設을 阻害할것이다

一、日本政府가 南京政權을 相對로해온 過去에잇서서는 何等 實績을 齎來치못하엿다 따라서 이機會에 南京政府만에 依存하는 從來의 方針을 버리고 南京政權外에 北中、西南各政權으로서 참으로 交涉相對로서 實力을 가진者를 交涉의 對象으로할것으로 이러하여야 비로소 中國의 發展을 招來하고 延하여는 滿洲國의 健全한 發展에 資하게될것이다(寫眞은 有田大使)

佛蘇兩國支持下 「다」海峽再武裝?
英國의親獨的傾向을牽制코
佛、蘇土代表와協議

【巴里二十九日發電通】佛蘇政府는 獨逸包圍防禦工作으로 急하는同時에 英國의親獨的立場을 牽制하기爲하야 리트비노프蘇聯外相及 아라스土耳古代表를 招請하고 協議한結果 다―다넬스海峽再武裝을 承認하려고 考慮하고잇다고傳하는데 卽

一、土耳古는 다―다넬스보스포러스水路非武裝協定廢止運動을 公式、非公式兩側面으로 目下盛大히 進行하고잇는데 그交換條件이라하면 重大한利益讓與를 辭하지안흘事情이잇다

一、蘇聯은 黑海安全保障의 意味로 黑海沿岸國의 軍事的優勢를 完成하고잇고 土耳古와 傳統的親善關係로보아 다―다넬스再武裝의 支持者가될 可能性이보이는것

一、英國이 只今까지 國境再武裝에 反對하여왓슴으로 무삼重大交換的利益의 收受가업시는 再武裝을 容認하지안흐리라고 觀測되는데 佛蘇가機先을制하야 正式交涉으로 로잔느條約改正을 受諾하며 土耳古는 佛國에接近하리라는것 그리고 海峽再武裝은 主로 英、伊兩國에만 關係가잇고 佛國及 佛蘇와 黑海[illegible]하는 [illegible]에는 直接的損害가업슴으로 土耳古의 一方的條約廢止의 [illegible]를取하지안코 合法的手段에 依하야 廢止를企圖한다면 條約形式에依하야 再武裝을 承認하리라고 信憑된다

[illegible]스海峽 [illegible] 다음危機가 [illegible]되지안흐리라고 할수업다 現在 地中海의 勢力의 平衡은 全혀 이다―다넬스非武裝을 前提로 하고잇는것이다 土耳其政府가 地中海와 黑海와를 連絡하고 要衝을 扼하게되면 事態는 重大化하지안흘수 업슬것이다

벡크波外相 英外相과重要會談

【倫敦二十七日發同盟】波蘭代表 베크外相은 二十七日 英國外務省에 이―든外相을 訪問하고 東歐洲諸懸案에對하야 重要會談을 遂하엿다 右會見에잇서 이든外相은 英國政府와 關心을 同하고 東歐洲에는 利害關係가적음으로 條約上 義務는 何時에나 遂行할決意이다 라는旨를 [illegible]하엿다고 베크外相은 二十七日夜 倫敦[illegible] 歸國의途에 就하엿다

伊機二十臺 하라르市爆擊

【아디스아베바二十九日】伊太利軍用機三十臺는 二十九日午前 東方의 要衝하라르市上空에 出現하야 爆彈을 投下하야 猛烈한 爆擊을 行하야 [illegible] 火災를 起하야 [illegible]全滅하고 [illegible]하엿다

蘭印政府에서도 海軍軍備를强化

【海牙二十九日發電通】當地에達한情報에 依하면 蘭印政府는近近 輕巡洋艦、快速驅逐艦、潛水艦等을 建造하는同時에 强力한 空軍을 組織하야 蘭印艦隊를强化하기로 決定하엿다 그런데最近 同政府에建議된 特別委員會의擴張案에는巡洋艦建造는 包含되어잇지안라고한다

山西進擊의共軍 心臟部浸蝕開始
싸베트區域建設實現乎

【北平二十八日發電通】山西全省赤化、地區設置를 目標로하는共西軍工作은 第二段에入하야 山西省心臟部로 侵蝕을開始하얏슴 卽그主力은 從來의 根據地를 바리고 進路를 南北兩方面에 分하야 北進部隊七千名은 太原附近의 討伐軍을 牽制하면서 太原西北地區를 展開하야 察哈爾、綏遠省境에向하야 進擊中으로 이와 山西東部省境의 劉子丹大部隊가 策應하면서 併行的으로 北進하고잇다 이에對하야 山西軍三中隊가 二十八日來攻擊을 開始하얏다 共産軍은 結局黃河上流地에몰녀가 劉子丹軍과 合流하야 一擧에 綏遠에移動하든지 山西北部에進入하든지 그中의한길을 取할形勢이다 一方南進部隊五千名은 同蒲鐵道를 橫斷하야 交城臨汾、曲沃附近肥沃地에서强力한 地點을獲得하야 싸베트地區建設을하려고하고잇는바 漸次山西全部를占有케될모양이다 그리고 山西省은山岳地帶이라 天然의要害가만코特히 山地戰을得意로하는 共産軍의北部侵入에對하야는 討伐困難하야 結局山西싸베트區의 設定에成功하고 北中自治擴大의 癌을맨들고말듯하다

李王職官制改正

【東京電話同盟】宮內省에서는今回 李王職事務의 事情으로 典祀技師、典醫、典醫補及技手의定員變更의 必要를 認定하고李王職官制의 一部를 如左히 改正하야 四月一日부터 實施하게되야 二十九日發表하엿다 皇室令第一項李王職官制中 第七條一項中「五人」을「四人」으로 改正함 宮內省令第三項李王職典醫補의「三人」을「一人」으로 李王職技手「六人」을「十八人」으로改함

八面錄

◇히틀러「天總統」『나치스』에對한獨逸國民의 信任投票를 行한結果 九八%九三으로 滿足한成績을 거두엇다고。
◇남어지 一%〇七은 獨逸國民이아니든가、猶太族과가티 追放이나當하지아니하면 多幸。
◇獨醚度가 이러케 야단스러운 꼴을보고 佛國도 强硬對策을 考究中이라고。
◇對策만은 强硬해도 實際로버티지못하는것을보면 어느구석엔지弱點도 不無한듯。
◇太平洋上의 "괌"島에 米國이 海軍根據地를 構築코자。
◇『지부랄타』가되든지『씽가폴』이되든지 平和를爲한 武裝이라하면 下回를두고볼밧게。

人事·集會

▲劉承復氏(京城府議員)身病으로 雨雲洞自宅에서靜養中인바面會는一切謝絕

蘇聯側將校와 決死的會見
深堀參謀
現地交涉은絕望!
蘇聯將校의退去命令으로

【琿春三十日發電通】深堀參謀는 三月二十八日 使者一名을 約一時間에亘하야 長嶺子附近에서彼我會見케하려고 書狀을 携行케하야 二道河子를出發케하엿는데 午後一時에 至하여도 그回答에接하게하엿스므로 深堀參謀는 通譯一名 其他將校以下 十一名을 帶同하고 二道河子로부터 長嶺子에向해 前進하야 途中 國境線을떠난 約二千米의 地點에 護衛下士官以下를 殘置하고 다시一千米를 前進하엿던바 蘇軍監視隊가 最初見學者團을 射擊한 右前方高地方에 이르렷스므로 深堀參謀는 白旗를 흔들며 回答을 求하엿던바 暫時後 敵게、페、우將校는 護衛兵三名을 거느리고 이편에 近寄하엿스므로 이편도 또한 저편에 近接하려고하자 그는 이쪽前方 二十米의 地點에서 손을 흔들며 深堀參謀의 停止를 要求하야가로되 나는 貴官과 直接交涉할 權能을 附與밧지안엇고 交涉은 領事館에서 實施中이다 나는 日本將校를 尊敬하므로 구태여 戰鬪를行하지안흐나 萬若 蘇聯領內에 停止하는데잇서서는 依然히 이를 射擊치안흘수업다 따라서 深堀參謀는 現在地는 滿洲國領土가 아니냐고 質問한데 對하야 彼는 願컨대 後退하라 我領土內에 머무는것을 끈치라 라고하엿다 玆에 深堀參謀는다시 지금잇는 現在地는 滿洲國領土이다 라고 應酬하엿던바 彼는 소래를노피 不穩不遜한 態度를示하엿스므로 深堀參謀는 이미 交涉의 餘地가 업다고 認定하고 徐徐히 同地를떠나 歸還의途에 올라 二道河子에 歸着한것이다

陸海軍協力으로 空軍力整備强化
明年度計畫分까지完了하면
全部三十九隊完成

【東京電話同盟】海軍에서는 昭和九年第二次補充計畫에 依하야 航空隊 八隊增設案이 成立되자 그것에압서 成立된 十七隊計畫 及 第一次補充計畫에 依한 十四隊計畫의 殘部를 合하야 새로 昭和十年四隊、同十一年六隊、同十二年四隊의 增設案을 樹立하야 鋭意完成에 努力하는一方 木更津、大湊、舞鶴、館山、橫濱의 五個所에 航空隊基地를 開設하야 全國的配置를 斷行하야 陸上航空兵力과 艦隊航空兵力의 整備强化에 努力한結果 大湊、舞鶴兩航空隊는 新擴張하고 또 來四月一日부터 木更津海軍航空隊를 開設하기로 되엇다 그리고 館山航空隊는 六月、橫濱도 十月까지에 開設하고 明年度四隊增設에 依하야 二十九隊全部의 完了를보게되면 다시 [illegible] 增設할 豫定이다

皇太子殿下御歸東

【東京電話電通】皇太子殿下께옵서는 去一月七日以來 天皇、皇后兩陛下의 御膝下를 떠나시사 御姉宮照宮殿下와 함께 葉山御用邸附屬邸에 每日、御健壯하시게 지내시옵던바 三個月만에御歸東하옵시기로되시어 三十日午前十時三十分照宮殿下御同伴、廣幡皇后宮大夫、小出東宮侍從、伊地知御養育掛長 기타諸侍從을거느리시옵고 附屬邸御出門、同十時四十五分逗子驛御發車 電車로 同十一時四十五分 東京驛御着、直時 東宮假御所에 御歸還하옵시엇다

時題小議
文化的紀功塔論
篤志有力者에寄하는書(五)
安在鴻 (5)

藝術은길다 人生은짧다 人生은 二代를 그 孤立한 로마에서 石火光中본다면는 그야말로 悲哀를 시새움이다 짧은 一生이 幾無常한 幻滅을 누기는 바임세 여기에서遺芳百世하는 새지안는 名聲을 남기려는것이 人情自然의衝動으로 될수잇는것이다 그러나 名聲을 조하하는者 한갓 淺薄한 失態를 흔히저질는나니 그聖賢에 浮澁함人인가? 名山勝區바위낭에名字를 삭여노는者 그 好名의 惰氣가 가엽다 고하려니와 後人으로 名字를 워되 그누구이든것을 알수업나니 슬프지 아니한가? 알되 기밀림이 업나니 서글푸지 아니한가? 仁人志士 天下民生의 때문에 그財와力을 기우리매 그功績이 振振한 後生에게미치어서 濟世利民하는 文化的風力이 반드시 有形無形한 不滅의靈火로 피어오르나니 무릇 貴賤한 一件의社會事業의 基礎를 떨기어두매이것이곳 恒存의 文化的紀功塔으로 되지안는가? 財의 物質이 그使用의營爲에서 비로소 빗나나니 오직蓄積하는意味의 富貴이아니니 凡夫日常에서目[illegible]體이나 貴하다 吾人이 한번 不自由한 고장에 들어가매 三尺의布衣가 오히려 내몸을 다소케 할수업고 數斗의 菽糧이 오히려내입에 종겨흘수업나니 使用치안는 資産이 나에게무엇이 잇슬가? 그러나 不自由는 그必然으로 닥어오는 要所의支配보담 더한者 업는것임을 알어야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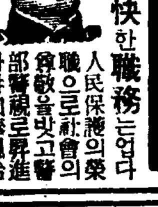
東洋의 서울은 石崇의富를 자랑한다 그가帝室의 姻戚인王愷와 豪華를 겨룰새 그愷盛한 財力은 天下를 놀래쳤다 그러나 天王의亂에 멸어나서 晋朝의 罪零이 昨是今非를 겪정하게될때 그는『놈에 나의財를 利하려하는고나』의 片言만을 남겻슬뿐이다 오늘날의 天下가 무릇 晋代의天下는아니지만 驕人으로하야금『梓澤丘墟』의 慨를 發하게 하는것은 人生의 本質的必然의運命인것이다 아니金谷繁華石季倫、但謀富貴不謀身 이라고名妓綠珠로더부러 金谷의 榮華에 잠겨살든 季倫石崇의 富貴는 피하엿스되 身命을 피하지아니한 畏懼은 達人의識界를 受할길 업섯다 그러나 이제는 身命의 問題라는 區區한 個人事는 아니오 天下國家 社會民衆으로 한께 더부러 萬年子孫의 計를 세우자는 것이다 萬年子孫의 計略者는 事全面全線的인 政治的方法도 잇는바이지만 目下의 情勢는 各사람들이 各地方에서 각각一件식의 事業을 造하고 各各 貢獻으로써 實誠의 企圖[illegible]業한 그리고 不滅의文化的紀功塔을 建設하자 함이다 모든사람은 名聞을 떠나서의 久遠生存의 運動의 一端으로서 當面情勢에서 이文化建業의 때문에의 實業協力을 할것이다 다만 名은 實의實이라 그實이 永存하는곳에 名價을 떠난者의 참되名聞이다 만無名戰死者의 무덤의 갸륵으로 방웃는 者 아닐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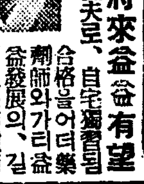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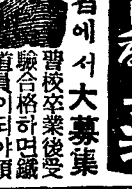
보라! 一萬圓의 完成이 四五萬의 金이면 우선그 不朽의功績을 이룰것이오 各種 文化事業의 基金이면 各種의 事業을 久遠토록 經營할것이며 數千 幾萬의 資金이면 각각 適正한 貴한 文獻을 卽刊行頒布할것이다 數十町步의田畓林野에 十餘萬의 基金을加함으로 一個의 自營的인 農民學校가 經營될수잇고 二三十萬의 基金이 優良한 家政婦人學校를 鄕土事情에 맞[illegible]서 適宜經營할수잇고 其他에準할 實業、職業의諸學校가 그要하는 各個의 邑都에설수잇는것이다 흑 數郡의財力을 集中함으로 五六十萬의 積立하는 基金이면 特히 善美한 高等學[illegible] 自己들의 影響되는 關內에 徹底 實現할수 잇는것이다 昨今海西各地에서 勃興하는 教育機關增設 擴張의 運動은 보건대 諸他의 地域은 [illegible]그範圍外에 超然한 獨自的인 情勢를 [illegible]할수업는것이다 朝鮮現下의 資産家는 先進社會의 그들처럼 雄厚하지못하다 그러나 現下內外의 諸情勢는 오로지 그自主的인 [illegible] 朝鮮의 [illegible] 處地 그文化的[illegible] 有力의 士女여! 飜然 그處地를 스스로 一再檢討하라! 그러하야 [illegible] 不滅의文化的紀功塔을 因緣기픈 이땅에세워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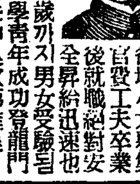
먼저 就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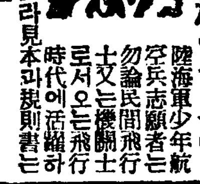
조흔講義를選擇하야배우는것은半成功이라갓다。諸君一日이라도빨니就職하야立身成功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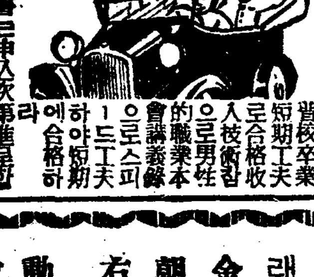
巡査となる早道

警官가티愉快한職務는업다 人民保護의榮職으로社會의尊敬을밧고優遇와給與 加俸恩給等特典만타 內地各府縣과滿鮮警察官志願者는合格率百%의本會講義錄으로準備하야 合格하라●見本과規則書는申込次第進呈함
東京市牛込台町五 日本警務敎育會

藥種商となる早道

藥業界는將來益益有望 僅少한費用과工夫로、自宅獨習으로 合格을어더藥劑師와가티益益發展의길이잇는藥種商이되다。男女學歷年齡不問全國受驗自由●見本과規則書는申込次第進呈함
東京市牛込台町五 藥種商受驗講習會

鉄道員となる早道

一般部外者에서大募集 本會의講義錄으로受驗하라 每年合格者多數續出 習校卒業後受驗合格하면鐵道員이되야順次昇進榮達함 就職希望者는●見本과規則書는申込次第進呈함
東京市牛込台町五 帝國鐵道敎育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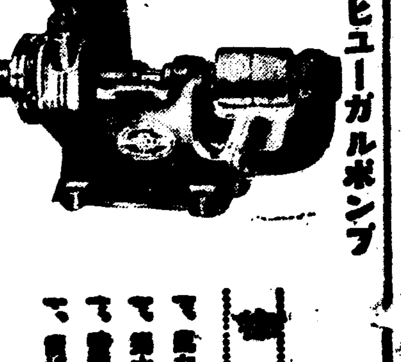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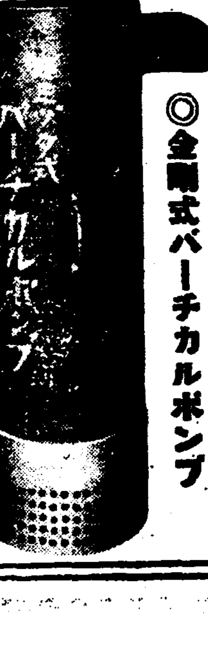
郵便局員電信となる早道

官費工夫傭 一개年卒業 每年數回全國各地서大募集 官費工夫卒業後就職絕對安全昇給迅速也 十四歲以上十五歲까지男女受驗됨 學資업는獨學靑年成功登龍門●見本과規則書는申込次第進呈
東京市牛込台町五 日本遞信敎育會

飛行家となる早道

大空의英雄아나오라 陸海軍少年航空兵志願者는勿論民間飛行士文는機關士로서오는飛行時代에活躍하려는諸君이여오라見本과規則書는申込次第進呈함
東京市牛込台町五 日本飛行敎育會

運轉手となる早道


나도되고십픈運轉手 習校卒業短期工夫로合格收入技術함 男性的職業本會講義錄으로스피-드工夫하야短期에合格하라●見本과規則書는申込次第進呈함
東京市牛込台町五 日本自動車敎育會

朝鮮日報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

◎ヒューガルポンプ

揚水設計에對한技術的問議는 弊社設計部로 尉讓치마시고
◎金剛式バーチカルポンプ

在庫豐富
一、[illegible]
一、[illegible]
一、[illegible]
一、[illegible]

進農號深耕犂

農家의收穫多少는犂良好에依함
五大特徵 一、深耕自由 一、反轉巧妙 一、牽力輕減 一、能率絕大 一、價格低廉
特約大店募集
石油發動機 セメン式精米機 山用ポンプ 精米機械 撚繩機 改良農具 製造販賣
京城府蓬萊町一丁目五番地 金剛商工社 電話本(2)二七八七番 振替京城一七五一六番

四月
京城春季競馬大會
三日(祭)十一日(土)十七日(金)
四日(土)十八日(土)
五日(日)十二日(日)十九日(日) 開催
於京城東大門外競馬場
朝鮮競馬俱樂部

斯界의權威的優秀品
地方特約店募集
ハート石油發動機
丸矢ポンプ
淸水型精米機及附屬品
仲田式製繩機
丸共式製叺筵機
古城式深耕犂(쟁기)
峰元犂先ヘーラ(보습벳)
淸水型精米機、圓筒ロール、砲金メタル
ファイバー、カキダシ、精麥用圓筒、改良藥切機、藁打機筵機、製繩機、除草機
豆粕削機、田植繩
シヨベル(삽)、ツルバシ(곡광이)、三德鍬、唐鍬、ホーク(호―쿠)、スペート(가래삽)、レーキホー、日本最優等品鎌(낫)
金星票、菱馬票、잠자리나뷔票
朝鮮在來式農用鐵物
右在庫豐富함 ▼商報進呈▲
動力機械 直輸入 改良農具 卸賣商 農用金物
京城府南大門通大田ビル內 大光社

新附區域郵便集配 舊市域同律로統一

集配回數增加코事務도刷新

府域擴張과郵便事務變革

사월일일부터 경성부의 구역이 확장됨에따라 지금까지 군부이엿든 영등포(永登浦)로량진(鷺梁津)왕십리(往十里)청량리(淸凉里)각우편소의 집배(集配)구역이 부내에편입되게되엿는데 종래의구역안의 우편집배상황은 경성부내와 비교하야 훨신뒤떠러저잇슴으로 체신국에서는 부의 구역확장과함께 전긔 지역의우편집배시설을 쇄신동일시히는한편 정동명을 고침에따라 우편소의 명칭도고치며 종래의집배담당구역을 변경하야 왕십리우편소담당구역이든 신당리(新堂里)는 경성우편국에 한강리(漢江里)는 룡산우편국구내에 청량리우편소구내이든 신설리(新設里)안암리(安岩里)돈암리(敦岩里)성북리(城北里)는 광화문우편국구내에 로량진우편소구내이든 로량진리、본당리(本堂里)흑석리(黑石里)는 룡산우편국구내에 편입하야 종래의부내와가티 우편집배를하고 룡산국구내의 동빙고(東氷庫)서빙고구내의 아현정(阿峴町)、공덕정(孔德町)왕십리우편소구내의 상왕십리정(上往十里町)하왕십리정 한동정(杏洞町)청량우편소구내의 청량정 전농정(典農町)회긔정(回基町)영등포소구내의 영등포정 당산정(堂山町)및 새로경성우구내로 편입된 신당정(新堂町)광화문국구내에 편입된 신설정 안암정 성북정 돈암정、룡산국구내에편입된 로량진정、본당정 흑석정의 집배를 하로에두번내지 네번식 느리게되엿다 그리고 정동명변경에따라 명칭이변경되든우편소는 다음과갓다

改正名稱	舊名稱
京城淸凉	淸凉
京城往十里	往十里
京城鷺梁津	鷺梁津
京城元町二	龍山元町二
京城元町三	龍山元町三
京城漢江通	龍山漢江通
京城通義町	京城通義洞
京城阿峴町	京城阿峴里
京城峴底町	京城峴底洞
京城惠化町	京城惠化洞
京城苑南町	京城苑南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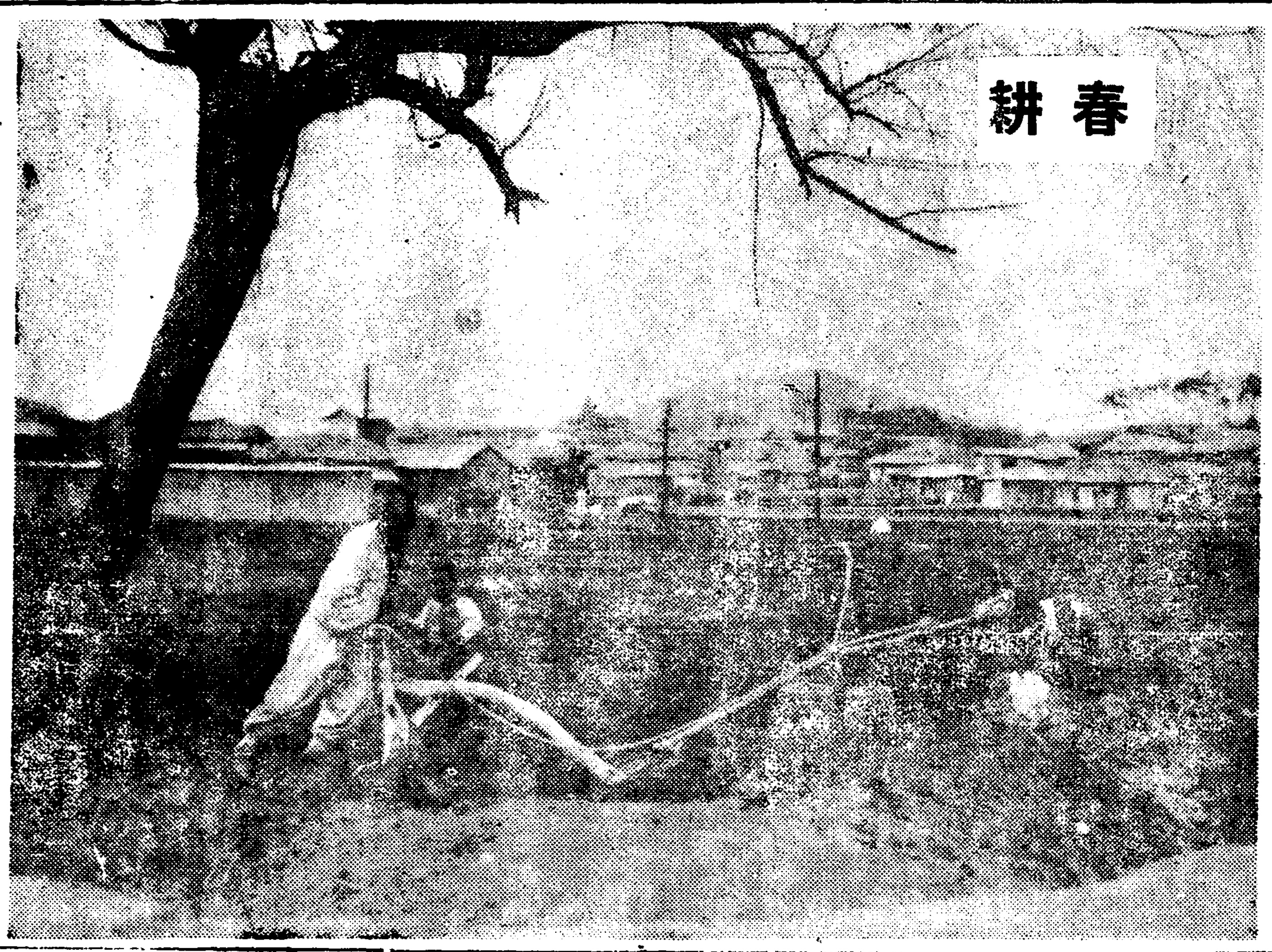
速達區域도擴張

速達小包郵便料減下

보통우편시설을 쇄신하는 한편 체신국에서는 속달(速達)우편취급방법도 개정하야 오는사월일일부터 실시하야 일반리용자의 편의을 도모키로되엿는데 그내용은 다음과갓다

一、영등포、왕십리、청량리각우편구시내(郵便區市內)에발착되는속달우편과 및 전긔우편구시내호상간에 발착되는 속달우편취급도 개시하야 경성부내강우편국소의 우편구시내거주자에게로가는 속달 우편물은 경성부내의 어떤우편소에서나 이를 취급하게되엿스며 영등포、왕십리、청량리각우편구시내와 인천(仁川)우편국 우편구시내간에 발착되는 속달우편물도 취급하며

二、영등포、왕십리、청량리각우편소에서도 속달소포우편물의 거택인수취급(居宅引受取扱)을 하게 하는동시종래에 영등포 왕십리및 청량리각우편국시내와 지금까지의 경성부내간에 발착하는 속달소포우편료금은 십전한개에 이십전이든것을 십전으로 내리며 경성부내각우편국소의 우편구시내에 발착하는 소포우편료금은 십전균일이되더로 한례를들면 영등포우편소에서 취급한 속달소포우편물이 단십전료금으로 청량리우편소나 왕십리우편소담당 우편구시내의 바듬사람에게배달되게되엿다



春耕

永登浦間電話一通料 十錢式으로減下

電報料는市內와統一

경성부의 구역은 약사배로 확장되나 전화는 교환국(交換局) 과 선로의 설비관계로곳 그런 부를 시내와가티 취급하기는 어려움으로 산관계로곤난함으로 우선종래의 경성시내와린접하야 전화의 수효도맘시중가되는신당정(新堂町)상왕십리정 북아현정 아현정 공덕정 신공덕정(新孔德町)도화정(桃花町)암근정(岩根町)및 마포정은 경성의 가입(加入)구역에 편입하고 영등포는 현재우편소에서 단독으로 전화교환을 하는데 설비가 불완전하야 그대로 경성전화분국으로 하기는 곤난함으로 장래에 그곳에 분국을 신설하야 경성가입 구역으로 편입할예정으로 우선 전화의 수효가 만흔양화정(楊花町)양평정(楊平町)、도림정(道林町)、신길정(新吉町)번대방정(番大方町)은 영등포의 가입구역에 편입키로 되엿다 이가입구역확장이로 말미암아 확장지역안의 가입자는 구역의선로 에대한 부가사용료를 내지안케되엿다 그리고 영등포、로량진、하왕십리 청량리등은 경성가입구역에 편입되지 못하고 경성과의 통화는 종래대로 시외통화로 취급하게되엿스나 통화료는 일통화 십전으로 내리여 다소불편을업새키로 되엿스며 영등포、로량진、왕십리、청량리 각우편소 호상간및 전긔우편소와 경성과의사이에발착되는 전보는 종래열다섯자까지 삼십전、다섯자마다오전식더 밧든것을 시내전보(市內電報)로어정하야 열다섯자까지 십오전 다섯자마다 삼전식더밧기로 되엿스며 종래성북정과 도화정은 구역외로서 별사배달료삼십전을 내지안흐면 보통우편물과가티 배달되엿섯는데 이번에죽 배달구역안으로 편입키로되엿다

蘇聯飛行家北極探險

【莫斯科二十九日發電通】유명한 소련비행가 뻐드피야노프、막크 호트키등씨는 무전기사와기공등 수명을동반하야 우수한장비를한 최신식비행기두대에 난호아타고 이십구일 오전열시사십오분 당지 비행장을출발하야 북극권(北極圈)탐험의장도에 올랏다 일행은『아아씨잉겔』『노브아야마란』을거쳐 『노브아야 베므리아』 최북단 『슐란드』에 도착하야 부근일대를 탐험한 후 이곳으로부터 다시 비행할 예정으로 일행은 사오월중의 식량을 휴대할예정이라고한다

어린이의선약 小兒肝氣散 京城府鍾路 本舖 普生藥房

常備消防手增員

各邑面의消防組를統一配置

京城府擴張과消防陣

경긔도경찰부보안과에서는 사월일일부터 경성부의구역확장에따라 소방(消防)설비를 충실히하고저준비중이든바 새로편입되는지역 영등포외가면에잇는 종래의소방조(消防組)일곱군소를 긔초로하야 그곳에 상비소방원(常備消防員)을두기로되야 우선소방수이십팔명을 느리기로되엿다 이십팔명은 영등포를제외한여섯곳에 각두명식배치하고 남어지는 영등포에 배치할터이며 이소방조제도는 현재모집중의소방원의 강습이끗나면 전시내의제도와가티 소방부원(消防部員)으로 고칠예정이라한다 그리고 십개년계획으로 소방시설확충을 계획하야 영등포에는 소방서출장소를 두고 그외여섯곳에는 파출소를 둘계획이라한다

學級增設不許

增級費積立不拘

【江西】강서군성태면에서는 성태공보교학급증설을도모하고 면민들이 협력하야 유지 멋멋은 을방문하고 학급증설비로 수천원을 어더노코 학급증설을 도에 신청하엿든바 인가가되지안허 실망에도라갓다는데 원래성태공보는 이학급、사년제、복식으로 교수를하고잇스며 생도는 약이백명을수용하고잇는바 매년 신학기가되면 신입생이삼분의 입학시엽을 보게되는 관계로학부형과 면민은 우려하든중에명망과 면민의 로력으로 증축비를 주선하여노코 인가되기만고 대하든것이 불인가되며 면민과 학부형외당국자도 실망중에 싸여잇다는 도당국도 초등교육을 위하야 다시고려하여주기를바란다고한다

新附區域各駐在所 當分間現狀대로

將來는派出所로改備

경성부의 행정구역 확장에따라 경성부내에도 열몃곳의 주재소가 드러오게되엿스나 예산관계로 곳파출소로 변경할수업서 당분간 현상유지를할터인데 경찰서관할구역에 잇서서 종래동산서관계이든 여의도(汝矣島)비행장은 이후영등포 경찰서관내로 편입키로 되엿다한다

七萬圓橫領事件公判

회사돈을 횡령하고 거즛 이환증(引換證)을 발행하야 동일은행(東一銀行) 상업은행(商業銀行)에서 칠만여원을 속여먹엇다

二世不良萬八千 三年間에四千名이激增

各道關係當局者를모아善導會議開催

社會教化政策上重大問題

총독부에서는 불량소년의 선도책에대하야 일반각도의 관계자를모아 대책을 협의하게 되엇다는데 작년말현재의 전조선불량소년수는 일만팔천명의 다수이다 그런데 이것을 삼년전에 비하야보면 실로사천명이나 격증하야 매년 그증가률이 커가는 상태에 잇슬뿐아니라 소년범죄자가 격증하여 가는 상태이다 따라서 경찰의 불량소년 취체를 강화하며 소년형무소의 증설등을 도모하고 잇는데 다시사회교화적 립장에서 그들의 선도를 하고 저소년에 대한법 연구주범의 제정실시는 물론불량소년의 『블랙리스트』를만들어 가정과긴밀한 련락을 하야보호 선도하며 또는경찰의 취체와강구하는 각종대책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야 불원간의 전긔각 방법을 실시할 의향으로 방금 관계국과에서 준비를 거듭하고 잇다한다

運動競技

日本學生卓球對抗 全京城軍惜敗

京城實業團과 全朝鮮學生聯盟軍을一蹴한 全日本學生卓球聯盟軍은 卄九日午後一時四十分부터 京城府民館講堂에서 全京城軍과 對戰하엿는데 全京城軍은 第四라운드까지 高商 朴盛泰君의 猛鬪이 잇섯스나 必竟 惜敗하야 全日本 學生聯盟軍은 三戰三勝의 全勝率을남기고 退京하엿다

第一라운드 全日本 全京城

顆 村(立大)1…3朴在慶(同上)
川 村(立大)3…0金相謙(同上)
靑 木(外語)2…3李在雨(同上)
田 村(日大)0…3朴盛泰(高商)

第二라운드

島 村(早大)3…1早 瀨(總府)
靑 木(同大)2…3早 瀨(前專)

第三라운드

安 井(京大)3…1朴在慶(總府)
今 (早大)3…0李在雨(總府)
川 村(立大)0…3朴盛泰(高商)
島 村(早大)3…0早 瀨(前專)

第四라운드

安 井(京大)2…3朴盛泰(高商)
今 (早大)3…0朴盛泰(高商)

東京마라손에 柳長春君二着

池中選手가優勝

【東京電話電通】全日本마라손聯盟主催 풀마라손競走大會는 二十九日午後零時十分부터 神宮外苑競技場을出發點으로 六鄕橋間二十六哩四分之三의 公認走路에서 擧行하엿는데 參加選手十三名、池中選手(東洋大學)가二時間三十三分五[illegible] 勝하엿스며 [illegible] 君은 앗갑게도二[illegible] 十三秒로 二着[illegible] 리고 朴永保君(日大)은[illegible] [決定]되엿다

▲1、池中([illegible])[illegible] 五六秒 ▲2、[illegible] 時間四一分二三秒 ▲3、[illegible](日大)二時間[illegible] 4、中道(品州)[illegible]秒 ▲5、安[illegible](赤[illegible])三時間[illegible]分五三秒 ▲6、朴永保(日大)三時間一一分二三秒

普專軍快勝

對京城럭비戰에

春季럭비리-그第十二日…普專對京城럭비俱樂部對戰은 二十九日午後二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 開始되엿는데 普專軍은先鋒으로 京城럭비先制하야 結局十三對十一로 快勝하엿스며 어[넘]第二次戰의 普專高普對京城商業戰은 京商軍이業業하야 普正軍不戰一勝하엿다

普專 13 (5…6 / 8…5) 11 京城럭비

朝鮮硏武館에서 新入館員募集

市內[壽]松洞에잇는 朝鮮硏武館에서는 다음가튼 規定으로 今春新入館員을 募集할터이라한다

▲入門金=二圓(每月[會]費)一般部一圓 女子部及少年部各八十錢 ▲練習時間=每日午後七時半으로 同九時까지

中等選拔野球

【甲子園電話同盟】大每 主催의 第十三回中等選拔野球大會 第一日은 二十九日甲子園 球場에서 午前十一時七分岐阜商業對廣島商業戰으로 開幕되엿는데 第四[回]大激戰끄테 三A對二로 岐阜商業軍辛勝

岐商 3 廣商 2

廣商 0 0 0 0 0 0 1 1 0 — 2
岐商 0 0 0 1 1 0 0 0 1 — 3A

【甲子園電話同盟】中等選拔野球第一日第二次戰인 松山商業對浪華商業戰은 卄九日午後二時卄五分부터 浪商先攻으로 開始되엿든바 結局一A對零으로 松山商業軍勝

松商 1 浪商 0

浪商 0 0 0 0 0 0 0 0 0 — 0
松商 0 0 0 1 0 0 0 0 — 1A

【甲子園電話同盟】中等校 選拔野球第二日一次戰의 桐生中學對熊本工業戰은 三十日午前十時부터 甲子園球場에서 開戰한바 結局九A對七으로 桐生中學이勝하엿다

桐生9 熊本工7

熊本 0 1 0 0 0 2 0 2 2 — 7
桐生 6 0 0 0 3 0 0 0 A — 9A

東洋拳鬪會에서 新春部員募集

市內水標町에잇는 東洋拳鬪會에서는 新春을 마지하야 新入部員을 增募한다는데 練習時間은 每日午後四時와 午後七時로定하고 入會金은 一般五圓 學生은 三圓이며 每月會費는 一圓이라하는바 詳細한것은 同會 問議하기를바란다고한다

運動界人事

▲洪性照君(普專庭球選手)과 李貞仁孃의 結婚式은 四月七日午後一時 京城府民館에서

書册代로군것질하고 强盜맛낫다告發

三越뒤學童强盜告發事件眞相

學童둔家庭에警鐘

조선운송회사청량리영업소주임이엿든 리기수(李岐秀)(四〇)시외룡두리(龍頭里) 대행정미소(大行精米所)주인 우길행(吳吉行)、신룡안(申龍安)(三〇)등 세명에관한 유가증권허위고입 (有價證券虛僞記入)、행사(行使) 사기 (詐欺) 배임(背任) 업무횡령(業務橫領)피고사건은 삼십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정원(伊集院)재판장 전중(田中)검사의 담임으로 제일회공판이 열렷다

책사려든돈으로 과구마를 사먹고 궁한나머지에 강도를 맛나 돈을 빼앗겻다고 허위고발을하야 부모를 속인 빼트리진 동실(童心)을 가진 두소년이잇다 이십구일 본정서원(本町署員)이 삼월(三越)배회점 순찰중 행동이 수상한 두소년을 본서에인치하야 이래 취조중 아래와가튼 무서운 사실을 고백하엿다 그들은 시외 리태원 (梨泰院)칠십이번지 리성옥 (李成玉)(一三)의 아들 금복 (今福)(一二)과 성(醋成)이라아하 혼자마집으로 도라가서 이실구일 본지조간에 기보한바와가튼 허위의 강도사실을 고백하야 부모들을 속여 재차책살돈을 나본정(本町)을 도라다니면서 시과자와 고구마사먹기에 소비하여버리어 이에맛을드린 그들은 세번재로 돈구할방법을 생각하고가 백화점가튼 사람만히 모이는곳은 훔치게 쉬울것이며 들킬념려도업다는 무서운 꾀를 어든 그들은 즉시 삼월(三越) 백화점에서 때마츰 일요일로사람이 만히드나드는 틈을타서문방구(文房具)를 훔치려다가그만 순찰중의 본정서원에게 체포당하여 전기와가튼 사실을고백하엿다는데 취조경관도 그들의대당한 행동에는 놀날뿐이며 일반가정의 주의할일이라한다

어린이날記念 準備會를組織

各部署와其他를決定

조선의 어린이명절로 해마다 오월첫공일날이면 『희망을살니자!』 『어린이날을살니자!』 등 뜻기픈 표어미테 전조선적으로 성대하거행하는 『어린이날』을 준비하고자 지난이십칠일 중앙기청사교실에모혀 고황한씨사회아래 소년운동관계단체 대표자회의를 열고 금년도에도 원만히 거행키로 중앙준비회(中央準備會)를 립시조직하고 그전례관편으로 아래와가튼 준비위원들 그부서를작정하고 모든사정과 일체는 위원회에 일임키로하얏는데 림시사무소(事務所)는 시내경운동(慶雲洞八八)번지안에 두기로하앗스며 동위원회는 사월이일 실일(實日)에모혀 열기로되엇다고한다

◇準備委員及部署

▲總務部 李晶 張南元 金榮一 南基薫 高長煥(責任)

▲交涉部 趙鐵鎬 桂炳鎬 金永宗 朴鳳信 金泰哲 李桂承 李炳奎 崔一 金鍾鳴 丁世鎭 李元珪 金弘錫

▲地方部 鄭相鶴 金相德 千弘基 朴東日 李龍徽

▲考案部 李定鎬 金泰午 尹喜永

▲財政部 咸順在 孫今童

開城支局後援 『高靑』雄辯大會

【開城】고려청년회학예부(高麗靑年會學藝部)주최와 본보개성지국 후원하에 전조선남녀웅변대회를 개최키로되엿다는데 뜻잇는젊은이는 사월오일까지 신입하야 만이 참가하기를바란다고 한다

時日 四月十一日(午後七時)
申込期日 四月五日까지
賞品 一、二、三等

大同郡炭鑛村의 飮料水大飢饉

【大同】대동군[일대]의[탄광] 부들은 해빙기를 압두고도 음료수 고갈를부르짓고 잇다—탄광경기로 모아들엇든 가족들은 긔근선상에서 헤매이고 잇서서 지하로동자들의 생활은자못 비참하다고한다

中等校合格者

全州師範校講習生入學豫定者

韓述模 韓準植 韓昌錫 吉炳鎬
許洪祐 許 瑨 姜旭馨 金瑛基
金泳文 金胤植 金學仲 金宗基
金箕賢 金基鎬 金熙昌 金亨洙
金桐國 金敬濟 金環喆 金元河
金元培 金周煥 金周洽 金鍾錫
金洲獻 金振成 金曙鉉 金石鎭
金東獻 金日宰 金文星 金炳暁
金培經 金瑞圭 金裕泳 金容厚
具然憲 吳錫律 黃一成 黃應元
黃義吉 黃奎哲 黃載健 黃喆秀
黃裕性 洪萬洽 洪性學 洪性完
洪正杓 洪會植 洪鎭基 高文相
康元植 權五乘 權重達 蔡洪錫
蔡奎英 蔡奎徽 崔士楨 崔壽煥
崔順甲 崔昌鎬 崔昌瑞 崔鍾萬
崔慶錫 崔仁國 崔裕熙 崔成玉
崔東植 崔秉千 崔奉瑞 崔命洙
曺奎燮 孫承俊 張玉宇 張光燮
張時烈 張準基 趙洼淵 趙高九
趙炳龍 丁奎亨 鄭煥謨 鄭國範
鄭興鎬 南相殷 任正鎬 白英烈
白鍵基 閔潤植 文建鎬 文昌植
方錫禎 朴永周 朴衡明 朴基洪
朴享模 朴光用 朴燦伯 朴東信
朴商玉 朴容南 朴來殷 楊載植
羅用祚 李永錫 李榮植 李夏榮
李漢膺 李基東 李奇東 李基龍
李奎璇 李恒柱 李宰興 李濟榮
李春澤 李順哲 李升永 李鍾律
李水雨 李信淳 李晋泰 李興根
李完榮 李達善 李南眞 李範來
李容六 李龍學 柳根碩 柳昌烈
梁相運 柳萬英 劉廷相 梁大錫
林淳榮 盧景彬 魯東希 具齊甲
申原熙 徐繼善 徐鳳植 全炳珏
全炳駿 蘇允永 蘇龜燮 安鍾甲
安鎭熙 河在榮

天氣豫報

概況 高氣壓은 北中國에七七五粍을 보이고 이로부터氣壓은朝鮮을거처漸次本州로低下되여잇는바 小笠原島附近海上에는 氣壓이좀노프나 滿洲朝鮮은晴 日本內地는曇 氣溫은昨朝보담 四度內外내렷다

豫報 京城地方 今夜는晴 明日도同 京畿道全區同上

昨日最高 七度四
同 最低 零度一
今日正午 七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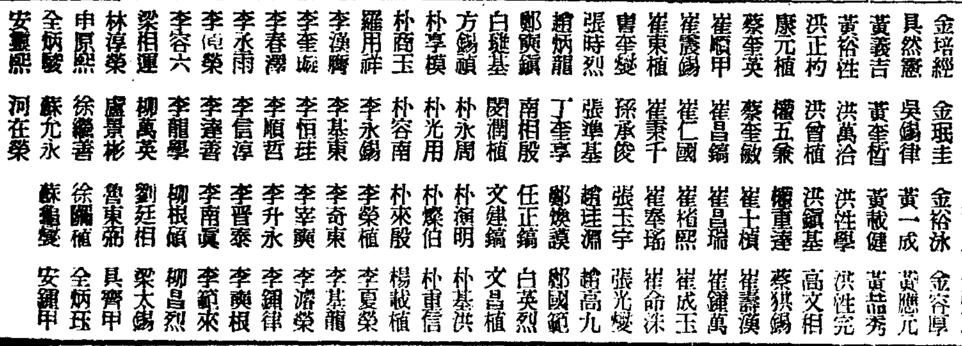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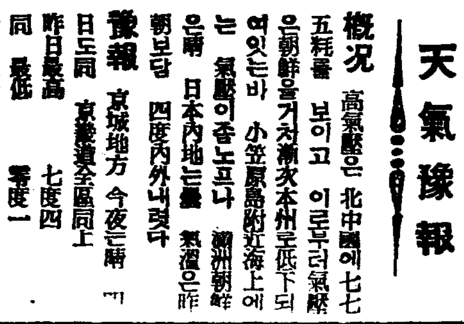
代金全額後拂
道師秘方
不老長春 强精回春 更少年藥
●藥效가 廣告와다르면 代金지마시요
●藥先送 代金全額後拂
最極上、確實한 藥效가偉大
●詳細規則 三月二[十]日 朝鮮日報平[和堂]廣告를보시요
京城堅志洞 平和堂 振替五番

◈朝報案內
本人의所有登記와長孫의所有登記를次子인學成君이竊買或은抵當하고자하오니僉位는信用치마십시요
京城府桂洞一二의五〇 趙憲昌白

產地直輸入商
內地粿麥 白麥 精白米 塞爾精米 玄米 帝米 中粉米 白、赤胡麻、粟
釜山大倉町四丁目卅五番地 合資會社 東一精米所 代表社員 尹貞浩 電話一九九〇番

時計 上海歐米外人商館ヨリ直接引受 市價半額 分割供進呈 目錄無代進呈 日[光]洋行

당채색 (呈送報商) 京城府鍾路 德[illegible]

春夏帽子時期到
如何한 帽子에 對하야도 必히 弊店에 시요 長久한 不斷히 努力한 弊店製品이 各位의 期待라고 敢히 自임니다 더구나 二十깁흔 弊店信 하사 少毫도 貴下命하야 萬伏望하나이다
(限商店)


帽子專門製造都賣元
合名會社 坂井帽
京城府 電話本 振替京
工場 京城府 電話本

三月廿五日よ[り] 女と生れたか 歌後の幸福 蛇の目 定九郞 蒲田明朗ト-キ ▲女と生[れたか] 飯田蝶子、蒲田サウンド ▲最後 河村黎吉、右太プロサウ[ンド] ▲蛇の[目] 市川右太衛門 × 四月一日よ[り] 私とこのラバ 洋劇 專門

三月廿八日封切(六日間) 每日三回 午前十一時 午後一時半 午後六時半 ◆麗春の豪華版(第一週) M·G·M名作品 크라-크께블 진·하로 원레스·삐아리 主演 壯絶! 悲絶! 海洋劇의 最高峯! 明朗! 哀切! 세 아리·하로·三大名優의 名演技! 四 輕喜劇 프라체스카·갈主演 ◆삐유니버살社超特作映畫 『最後の別嬪』 ◆三回作『菁春賣』을맛보자 ◆日活特作映畫 『山の呼声』 『雪山의悲劇』 『大二郞主演』 星玲子、夏川大二郞主演 さくら音頭 靑果實 支那海 團成社

全鮮第一 映畵殿堂 電光九九九 團成社

三月二十九日부터大封切! 天下待望의豪華版! 絕對名畵! 폭스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巨匠지오라쉬氏監督作品! 男の魂 依하여 下의 話題 米國 驚異 紐育 ... 盲目の飛行士 재무스호랏드氏大作品! 子別れ地藏 大都映畫特作時代劇 中島寶三監督作品! 阿部九州男 川島芳惠子主演 鐘路 電光三九五 優美館

三月二十九日부터三日間大公開 每日三回興行 晝間二回 午前十一時 午後二時 夜間一回 七時 四十五分부터 大衆料金 階上席 十五錢 階下席 十錢均一 파라운트社全發聲日本版 恐怖의甲板 차-라스 톤 主演 爆擊飛行隊 早川雪洲主演 宣戰布告! 空中에는無敵艦隊! 陸地에는百雙한精銳! 敵航空母艦攻擊의下命! 太平洋은 決戰! 大秦全發聲超特作 三枚源次郞監督 차푸링笑殺三段 차푸링自作自演 여러분의 鐘路四丁目 電光 第一劇場

支社代理店特約店一覽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大神聖堂의陣容

支社 全南光州府 神崎神聖堂支社

市內 代理店

京城南大門通一丁目	新井藥房
本町二丁目	北島藥房
本町四丁目	木村藥房
鐘路三丁目	第一藥房
仁寺洞	富仁藥房
阿峴	春山藥房
南大門通一丁目	富士屋藥房
黃金町四丁目	南海堂

代理店

仁川府外里一九〇	仁川堂藥房
忠南天安邑內	徐光年

特約店

京畿道仁川府外里	中和堂
同 永登浦驛前	淸一堂藥房
同 金浦里	回生堂藥房
同 江華郡良道面道場	韓仁奎
同 始興郡新東面中岱里	李鍾英
同 龍仁郡	李相模
忠南大田邑大興町四九	朴玎均
同 洪城	李康世
同 成歡	安城商店宋千逸
忠南扶餘郡良化面草旺里	高文寬
公州邑本町一四七	崔鍾國
全南順天邑金谷里	金禎泰
全北金堤	趙東泰
井邑郡笠岩面大興里	陳善長
井邑郡七寶面白岩里	李廷鎬
茂朱郡赤裳面北倉	柳用極
錦山	金永贊
慶南京釜線勿禁驛前	大光藥舖
咸安郡安義面	崔禹錫
河東邑	濟生堂藥房
蔚山郡靑良面開谷里一六	孫秀浴
居昌郡	章榮振
蔚山	朴慶龍
南海	華生堂
慶北軍威郡城面山三山洞二〇六	朴基憲
尙州郡邑外水田里	權聖八
善山里本町	金亨燮
醴泉郡丌山面景汀里	金春淑
善山邑內	新生堂藥房
佛國寺	金觀濟
慶北淸道	鄭環逌
江原道金化郡邑	金化藥房
江陵	黃德源
新高山驛前	普惠藥房
原州郡原州面花月里一〇四	金鳳奎
金城驛前	文化商店
原州郡富論面興湖里	禹在根
洪川郡化村面君業里	申世均
黃海道載寧	金宗善
鷄井	金鷄商店
鳳山郡德在面赤[illegible]	李淳芳
海州	孔觀五
信川郡龍門面福隅里	權五契
延白郡彰[illegible]里	吳蒋福
海州	林官浩
安岳邑	朴俊鎬
平南平壤	有賀藥房
大和町通	石川赤門堂
大同郡[illegible]山面中[illegible]里	金鮨容
龍川驛前	全應朝
[illegible]	鄭鳳益
雲田驛前	春山藥房
平北碧潼	金泓官
南浦源秀山驛前	朴採瑾
龍岩浦農民共生組合	金興澤
宜川邑內川北洞	福山婦人商會
鐵山郡邑內	安東商店
江界郡公北面香河洞	李和松藥房
熙川郡邑上洞八五	韓用俊
宣川郡川南洞	回春藥房
平北新義州	金石崇
車輦館	東北藥房
同 定州	胤和藥院
同 鐵山	安東商店
咸南新興邑內	錫安藥房
同 定平郡新上驛前	春起藥房
同 永興郡古寧面三峯里一四七	金允吉
同 豊山邑內市通	義信商店
同 永興郡宣興面城里	嚴龍得
同 長津郡郡內面西上里梅田	姜榮順
同 淸津郡	救世藥局
咸北城津港旭町	普信堂藥房
咸北北靑郡下車面[illegible]市	姜完洙
同 城津郡鶴南面[illegible]洞	李柄秀
同 雄基港本町	迎春局
同 會寧	世一堂藥房
同 漁大津	閔泳龘
東京芝區日出町	江原三郎
大阪大正區南恩加町	高田商店
京都	梁井煥
名古屋市南區	平和堂
島根樂美濃郡正見	片岡古吉

支社代理店特約店特典大募集

全鮮各地에 支社代理店特約店을 大擴張하고 今般 다시大特典으로 增募하오니 이조흔機會를 일치마시고 急先申込하시오 先着者로 決定합니다 詳細는 規定書를 請求하시오 無料로郵送함

特히 支社設置를 歡迎합니다 支社長이되시고 大成功하시기를바랍니다

特約店以外에는 절대로화리나특전여업습니다

家庭

음식솜씨자랑은 『맛』의철학아는분이

짜고、달고、시고、쓰고、맵고한것 뒤석는데예술이잇다

음식은 맛에 잇습니다。그러니까 음식솜씨를 기르시려는분들은 먼저 맛의 철학을 공부하서야 합니다。혜로 맛보아 조흔것이 조코 나뿐것이 나뿌지 맛에도 무슨 철학을 다 찻겟느냐고요? 천만의 말슴이올씨다。맛의철학을 모르고서는 첫재로 해먼든 방식 그대로나 밤낫 해 먹어지 딴방식으로 개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둘재로 개량을 하려한다고 하더라도 천방지축 함부로 해보다가 아까운 감만 버리고 사장랑반의 핀잔이나 자시게 될것이 아니오니까? 공연히 반대마시고 공부하시기를 청합니다。단지 이것은 맛의철학중에서 천자로나 칠 분량입니다。천자를 떼인다음 차차 통감도 읽고 소학도 읽고 사서삼경도 읽기로 합시다。

맛은 보통을 짜고 달고 서고 쓰고 맵고 다섯가지로 난흡니다。그래서 맛잇는 음식은 오미(五味)가구존(俱存)하다고 말합니다。그러나 매운것은 딴맛과가치 맛이 아니요 혜라든지 입살이라든지 얼얼해서 생기는 것입니다맛이라면 그저 달고 쓰고 짜고 시고의 네가지뿐입니다。본래우리가 보통말로 맛이라는데는 냄새도 들고 볼품도들고 또 촉감(觸感)도 들어 퍽복잡한것이 사실 입니다 그러키때문으로 매운냄새와 얼얼한촉감을 주는 매운것까지도 맛으로 알어온것입니다。그외에 떫다 아리다 노리다 구리다등 이런것들도 단순한 맛만이 아니언만은 맛과 고만 혼통해 버리는수가만습니다。냄새는물론이요 심지어 연하고 보드러워서 입속에서 조흔 촉감을이리키는것도 고만 맛이조타고하야 맛과 혼통해버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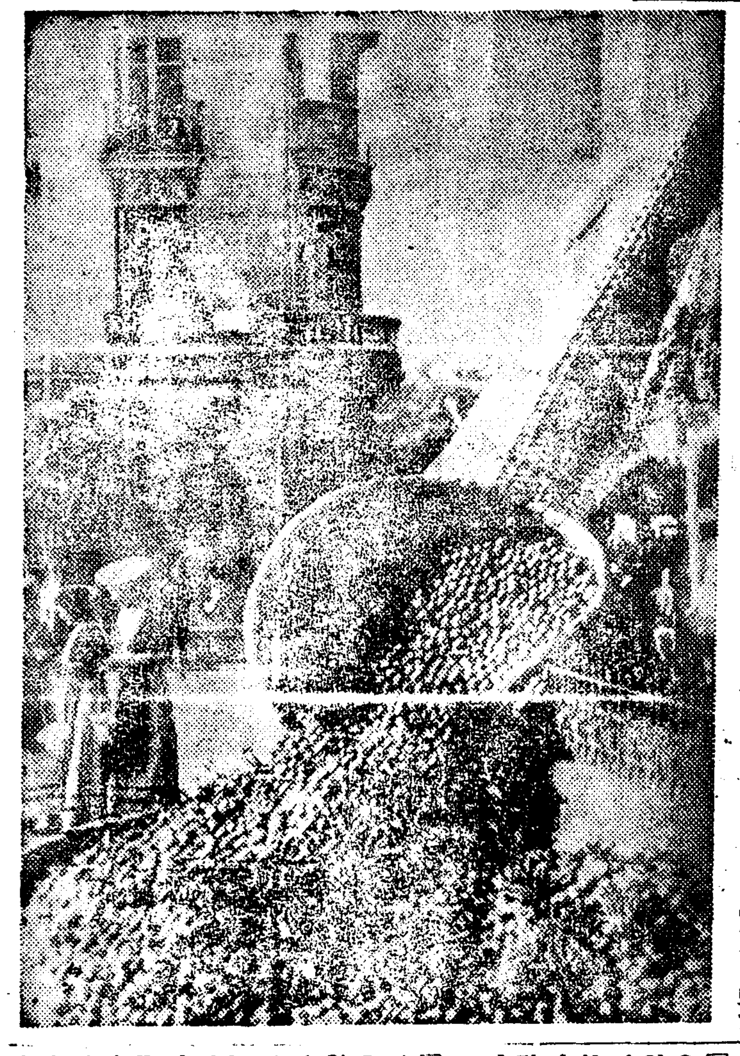
그러나 원맛은 우에서말한바와가치 단것 쓴것짠것 신것등 네가지밧게 업습니다。그이외의것을 우리가 맛이라고하는것은 일종그릇된 상식입니다。그런데 그 네가지맛도 따로따로만 나는것이 아니라 한데 석기어나기도 합니다。그런맛을 혼합미(混合味)즉여러맛이혼합된 맛이라고 합니다。그러고 혼합미에는 세가지의 경우가 잇습니다。즉 첫재는 각맛이 다각각 독립해서 가른정도로 나는 경우요 둘재는각맛이 서로흔들리어 개중의 강약이 들어나는경우요 셋재는 각맛이고만뒤석기어 전연 구분되지안는경우랍니다。그중의을 단순한맛으로 해서 조흘까 혼합미로해서 조흘까 또 어떤종류의혼합미로할까연구를 요합니다 떼떠노코 치는대로치고 맨드는대로 맨들어서는 밤낫 그식이 장식빠개에 안됩니다。

×

그뿐이 아니라 맛에는 서로고르게 하는힘 즉 중화(中和)시키는 힘이 잇습니다。그중화하는힘은 단것과 신것이 제일의하고 짠것과 쓴것이 그다음이요 짠것과 신것이 비교적센니다 나쓰미깡에다가 설탕을 칠하는것보담 소곰을 칠하는 것이더 단맛을 냅니다。그곳 단것과신것보담 짠것과신것의중화하는힘이큰까닭이올시다。또맛에는서로 딴맛을 이리키는 성질즉대비(對比)되는성질을가지고 잇습니다。그대비되는 성질은 쓴맛이외에 단맛으로 부터는 짠맛과신맛、짠맛으로부터는 신맛을 이리키게 됩니다。의를 수거나 할때 설탕을 치는동시 소금을 조금 처두면 더 단맛이 나고 또 왼쪽헤끄레 소금물을 무치고 오른쪽헤끄레 맹물을 무치면 맹물에서 단맛이 나옵니다。그런것이 모도 맛의 대비되는성질로부터 나오는것입니다。

불란서의 『레몬제』

불란서 각지방에서는『레몬』을 거더드릴때가되면 『레몬祭』를 성대히 거행하는것은 년중행사의하나가 되어잇습니다 레몬을거두어서 따기에 한창밥분『리베라』지방은 꼿『멘톤』지방에서 장한『레몬祭』를 열라고 방금그준비에 밥부다합니다 사진은 산처럼 싸여지는『레몬』이것이 다 재물로 씨일것이고 원족에서 엇는부인은 그남편 내고 왁라갓다할사회자(司會者)입니다



머리감는데는 『오일샴푸』

가려운머리가 빠지는머리

비듬이낫는데는생강즙 갑싼약사쓰면해만본다

봄되면 남녀간에 머리털의 정리하지못한것이 업는눈에띄우게됩니다 해볏이환한관게도 잇지만 머리에습기가 부족하게되어 머리밋이 버석버석한것도 갓고또 머리털이 말라서 상기가 되기쉬움으로 비듬이 유난스리생기게됩니다 금방감은 머리것만큰 질근질해서 기분이 조치못해집니다 더구나 비듬이 거른로허여케 서리안진것처럼 안다 고 또 몸을 놀닐때마다 비듬이 눈오듯 떠러지게되면 남보기에도 숭합뿐더러 남과교제하는데잇서 서 례의상 자미업습니다 이점을 상기되기쉬운 녀자들은 이점을 충분히 주의해서 한달에 적어도 서너너덧번 감는것이 조습니다 감는데잇서서도 맹물에감는것보다『오일샘푸』를 하시는것이 퍽효과적입니다

◇……◇

『오일샘푸』하는 방법은一식물성(植物性)의기름을 볼에 조금데워 헌겁에 듬뿍적시어 가지고 머리밋과 머리털에문댑니다 충분히 문댄다음에는 압니마머리털 난곳부터 시작하야 머리복판까지열 손ㅅ가락 으로 꾹꾹누르면서『맛사ー지』를합니다 기름으로 문대인데다가 손끄락으로 『맛사ー지』를하면 기름의 온도가올라가게되며 그기름이 모근(毛根)에 잘배이게도 되고머리털에도 고루고루 잘배이게됩니다 이러케기름으로 비비고 손가락으로 잘『맛사ー지』를한다음에는 조흔세수비누를 더운물에끄리어너어둔다음 그비누물이 머리감기에 알마즌온도가 되거든 머리배인기름을 씨서버립니다 그런다음에 다시 미지근한 맹물에 또한번 머리를 헤구고 마지막에 먹는초를 물에타서(초에대해서 물은 그의십배) 거기에 도머리를 헤굽니다 그러면 머리에 부듯든『알카리』성이 중화가되어 윤끼가흐르게됩니다

◇……◇

요새보면 비듬빼는약아니면 머리안빠지는 향수니해가지고 광고에도 만히나고 약방에가보면 화장품 진렬장안에 벌려노은것도 만습니다 전부가 다엉터리 업는것이라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나 사실에잇서서 신용할만한것이 적은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종류의 갑싼것을 쓰게되면 머리의 비듬이빠지기는커녕 머리미치 허는수도잇고 머리가 부스러지기도하고 엇잿든 그약안쓸때보다 더납분결과를 보게됨으로 약선택에잇서서 여간주의하지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러한 비듬약을사는대신 돈적게들고 손쉽고 효과적인것이 잇스니 생강(生薑)을 강판에가 짝짜서 그생강물에 정한물을 오륙배가량타서 머리미를『문』댑니다 그러면 머리밋정해질뿐더러 비듬도적어지고 또한머리밋 모근(毛根)을 자극해서 머리빠지는것이 낫게되고 머리털이 잘나게됩니다 도회지가아니고 시골에사는분들에게는 비듬약으로 이이상효과적이요 경제적인것은업슬것입니다

파리

지금부터잡자

날이 따뜻한것은 조흐나 귀찬흔것이 파리입니다。벌써부터 파리가 날아다니기를 시작합니다。본래파리란 놈은 엇지나 번식을 잘하는지 지금쯤 한마리의 파리가 가을에가서 조의 천조배나 되는 자손을 거느리게 됩니다。조는 억의만 배인데 다시 거기다가 천조배라니 과가 막힙니다。그러니까 지금 한마리의파리를 죽이는것이 가을의맷억만마리를 죽이는 폭이올시다。파리를 빨리 처치해야 합니다。

파리를 아조 철저히 업새라면 쓰레기통이라든지 변소라든지를 아조 완전히맨들어 파리가 못 덤비게되여야 합니다쓰레기 통이나 변소를 그러케 뜨더 고치기가 어려거든 소독이라도 해서 파리의 유충을 업새버려야 합니다。소독약이라야 석유유제(石油乳劑)나조제봉사(粗製硼砂)쯤 훌륭합니다。조제봉사 두푼드만가지면 두말닷되의물에다가타서 한섬여섯되의 볼결물을 완전히 소독할수잇습니다。또 제충국가루도 효과이잇습니다。

처녀들의젓큰것은 숭이아닙니다

아직 시집도 안간 십칠팔세 처녀로서 젓통이가 유난히커서마치 어린애를 나어기른경험이잇는 분의 젓처럼 된이가 잇습니다。그래서 당자되는이도 공연히 부끄러워하고 또는 몰상식한 사람들은 그것을 볼때그녀성에 대해서 엇던억측과 의심을 품는수도잇습니다 그러나 젓통이가 크다고 반드시 처녀가아니라는 생각을먹는것은 그야말로인식착오지요 대체로 녀자가 십칠세줌되면벌서 결혼할나이가 된것입니다그럼으로 신체모든 부분이다발달되며 성숙해질것이 사실이매따라서 젓통이가 커지고 영에 커지는것은 조곰도 이상할것이 업시 자연의 법측에따른것이라 고할것입니다。

그런데 젓통이는 주무르든지 빨린다든지하는자극을 밧게되면 자연커집니다 이사실은녀자에게만 그런것이아니라 남자에게잇서서도 그런데 례를드려 말하면 어린애를 귀해하는 그의어머니나 어른들이 그애를 을리느라고 젓을주무르라주면 젓이 점점커집니다。이러고보니 더구나 녀자의젓커지는것이 조곰도 이상할까닭은 업습니다。우에말한것이 사실은 사실이지만 젓이커서 축느러진것이외관상으로보아 더구나 처녀의육체미로보아 조라고야 할수업습니다 그런즉 출가전의 녀자들은 공연히 젓을 주무르지마는 것이조습니다 주무르는것이 곳자극이요 자극으로 인해서 젓이느러나니까말슴입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젓큰것이 자랑꺼리도되기야한니다만……

鍾美會主催로 手藝講習會

시내본정일정목에잇는종방(鐘紡)써비스·스테이숀종미회(鍾美會)주최로 수예(手藝)강습회를 사월이일부터 십사일까지 우수일(偶數)만오후한시부터 네시까지 개최한다는데 회비는 이원이라하며 신청기일은 삼월이십구일까지이고 강습할것은 탁자보、방석、센타、양액(洋額)등이라한다

낙태식히는약

問 저는 금년 삼십팔세의 기혼 여성이온대 작년 팔월에 남아를 출산하얏섯는대 또 금년에 또다시 어린애배운것갓허서 걱정이옵니다 금년에 출산하온다하오면 현재잇는 아이에 발육에도 큰 방해가잇는것갓고저의 신체도 대단히 쇠약하고잇습니다 현재 뱃속에 잇는아이를 업새게 하는 약을 좀하고하여주십시요 (一女性)

答 약으로써 낙태를 식키는것은 대단히 위험한것입니다。만일 당신에게 무슨병이 잇서서 임신을 계속시키면 조치못하겟다는 다른의사의 진단서가 잇스면 수술로서 낙태시킬수가잇는것입니다。(大學病院產婦人科 金鍚煥)

임신때에복통

問 저는 삼십칠세의 여자로 오남매의 아희를 생산하엿습니다 금년음 이월부터 태기가유하와 산기만 고대하올든차에이 삼월접부터 복부가 터지는것갓고 음식맛도업고 잠도잘자지못하겟습니다 이때로는 산기까지 잇슬수가 업사오니 그전에 해산시킬수가 엇을까요 (唐津 一讀者)

答 임신때에도 해산할때와갓치 진통이 오는일이잇습니다그런때에는 누어서 아모조록 복부를 자극하지안토록 하십시요 임신때에오는 진통은 산월이갓차워질수록 심하게 오는것입니다 별로 근심하지아니해도조흘것갓습니다 (大學病院產婦人科 金鍚煥)

童話 쥐들의공론 (四)

崔秉和

『그러면 얼른갓다오게。방울은 여기잇스닛간。자네는 이것을가저고 부엌에가보게。내가여기서 최면술을 걸려잇간 고양이놈을 붓잡어시 잠이드러버릴것이니』

『그럼 단여오겟습니다』돌톨아범은다른쥐에게 들키지안케 방울을 흔들면서 부엌에가서 구녕에서 빠끔내다보니간 부엌에엇다든 고양이가 어듸로갓는지 보이지안엇습니다。

『그럼 잠간 기다려볼까』하고 방울을흔들고하는데 무엇이 눈압을 가리는듯하더니

『이놈잡말어라。네가가진것이 무엇이냐?』하는소리는 틀림업는 이집 강쭝고양이엿습니다。

고양이발밋헤드른 돌톨아범은

『살려주십시요。』

『누가 너를 잡아먹는다고하엿나。』

『그러치만 당신에게 붓잡히기만하면 죽고마니간요』

『눈치빠른쥐로구나。그런데 네가가진것은 무엇이냐。방울이냐?』

『네、방울입니다』

『무엇하는방울이냐 꺼미머리는 방울은 아니겟지?』

『이방울에대해서 깁흔까닭이 잇답니다』

『어듸、그까닭을 말하여라。사정을드러바서는 너의목숨을 살녀주마、나는지금 큰쥐 세마리를 먹고와서 배가불느니간。』

『그러면 말슴드립지요。』하고 방울에 대한 이약이를 한나도 남김업이 말하니간 고양이는껄껄우스면서

『하하하하、이것은 하줍할노릇이로구나。더욱이 쥐의최면술이라는것은 요절할노릇이다。그것을 정말로알고 방울을흔들고온너도 어리석은놈이다。』

『무어라고 말슴드릴수 업읍니다。』

『너갓튼 어리석은놈은 먹어도 맛이업슬것이다。너의목숨은 살려주마。』

『참 고맙습니다。』

『그대신 너의주인이라는 힌쥐는 살려둘수가업다。저놈이 하고십지안은일을 남용식히는 그마음이 고약하다。그런놈에한해서 납분지헤가잇서서 언제든지 맛잇는음식을 훔처다 먹을것이 틀림업다。

아마 살이통통이쩌서 맛도못 겟지。자、깁흘가르커라。배는잔득불느지만 그러한놈이면 한놈쯤 더먹기어렵지안타。길을아르켜주지안는다면 맛은업지만 너래도 잡아먹겟다。』

『네 그저 살려주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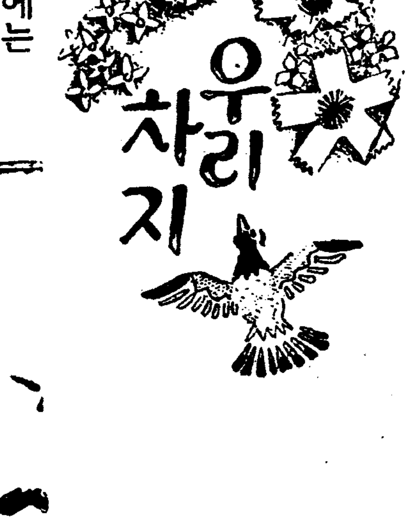
『어서 압장을서라。』

돌톨아범은 실치만 할수업시 힌쥐의집을 아르켜주엇습니다。그러니 힌쥐는 자기집에서 편안히 드러누어서

『흥!빙충마진놈、지금쯤은 고양이에게 소곰도발느지안코 대가리로부터 먹혀버렷스리라。내말을듯지안흐니깐 최면술을씨운다고 속혓드니 고지듯고 가는꼴의선이랑。』하고 껄!껄!웃고잇는그때 뛰여드러온 고양이벼락불똥이가려 힌쥐에게 떨벼들어서 잔득내리눌느면서

『이놈 무엇이엇저고엇재、너가튼 고약한쥐는 뼈도남기지안코 먹어버리겟다。』하고 힌쥐를 눈깜작할사이에 다먹어버렷습니다。그것을본 돌톨아범은 입을에 찬땀흘림!(끗)

우리차지



용길아 이번공일에는
어머니하고 누님하고
형님하고 너하고 모두
들에 나가놀다오자。
너종달새우는 소리드
러봣니。그리고 시골
사람들이빗갈고、거름
주고 하는것 본일이
업겟지 나만따라 가
자。조흔 구경하고 자
미잇게 놀다올테니。
그때먹을 점심반찬무
엇을 장만하시라는지
어머니께 여쭈어봐라

(글사람 한이순)

地下村 (圭)

姜敬愛 作 熊超 畵

『개개한데 그리되엇지오』

『아 그기와집에 가서수……그놈네개를 길러도 흉악한 개를 기르거든 흥! 돈잇는놈이라모두 한놈이 아니우 어디이러내노우 개에게 물린것이 심상히 녀일것이 못되우』

사나히는 그의 다리를 잡아다리엇다 그는 얼른 다리를치우면서도 형용할수업는 울분이저즌 옷에까지 오삭오삭기어오르고 코안이 싸해서 몃번 코를 울질일때 뚝하지안흔 눈물이 주르루 흘러나린다 사나히는 이눈치를 채이고 허허웃으면서 그의 등을 가볍게 두다렷다。

『이친구 우오 울기로 하자면 허허 울어선 못쓰오 난 공장에서 생생하던 이다리가 기게에 몰려 이리되엇소만은 지금 세상이 어떤줄 아시우』

칠성이는 머리를 번쩍들어사나히를 바라보니 눈에 분노의버치 은은 하엿다。다시 다리로 시선이 옴겨 질때 가슴이 우는 지경인데 알굿쓰는것은이야 허허』

사나히는 허공을 향하야 웃는다。그웃음소리에 소름이 오싹끼처 힘잇는사나히를 보앗다。눈을 무섭게뜨고 발을 내다보는데 이마엔 퍼런힘줄이 불숙일엇고 입은 꼭닥을고잇다。

『허 치가 떨려서、내웨그리어리석엇든지。지금만 가트면 지금이라면 죽더라도 해볼걸 웨그끌이엇서! 흥!』

칠성이는 귀를 밝혀 이말을 개어 들으랴으나 무엇을 의미한 말인지 알수가업섯다。사나히는 칠성이를 돌아 보앗다。눈아래 두어줄의 주름쌀이 돌아가신 그의 아버지와 흡사햇다。

『이친구 나두 한가정을 가젓던 놈이우공장에선 모범공인이엇구。허허 모범공인!……다리가 꺽긴후에 돈한푼 못가지고 공장에서 나오니 게집은 다라나고 어린것들은 배고파 울고 부모는 근심에 근심에 지리돌이 ……고 목이 ……

루질리는것 가타 시름업시 머리를 수기고 무심히 보드러운 먼지를 쥐어 상처에 발랏다。

『어이구! 먼지를 바르면되우』

사나히는 칠성의 손을 팍붓들엇다。칠성이는 어린애 가티 웃고나서

『이러면 나유』

『아 원 그런일 다시는 하지 마우 약이없으면 말지 그런일 하면 되우 더성해서알게되우』

칠성이는 약간 무안해서 다리를 웅추리고 발끝 바라보앗다。사나히는 또다시 무슨 생각에 깁히 잠기는것 갓다。

바람이 비를 안고 싹싹 밀려들고 첨청에 수업는 거메줄은 끄허서 연기 가티 나붓겻다。바라보는 버들나무의 입입은 팔팔떨고 아래로 시뻘건물이 찰찰소리를내고 흐른다。어깨우가 어쩔해서 돌아보면 큰 매돌이 쌀겨를 뽀여케 쓰고서 어름가튼 서늘하기를 풀풀피고 잇다。

『배암의 병신이우?』

사나히는 문득 이러케 물엇다。칠성이는 머리를 수기고며 못머뭇하다가

『아이윤』

『그럼 알키가 그러되엇수려…… 약써봣수?』

칠성이는 또다시 말하기가힘든듯이 우물쭈물하고 다리만보앗다。

『아이뉴 몽못써서유』

『흥! 말짱한 생다리도 꺽기 ……하우。우리를 이러케 못살게하는놈이 저 하늘인줄 아우? 이 땅인줄 아우?』

사나히는 칠성이를 딱쏘아본다。어쩐지 칠성의 가슴은 까닭업시 두군그려참아 사나히를 정면으로 보지못하고 꺼긴 다리를보앗다。그러고 사나히의다리미테 황소가티 말업는 땅을 보앗다。

『아니우。결코아니우。비록 우리가이꼴이 되어 전전 걸식은 하지만두。웨우리가 이꼴이 되엇는지나알아야 하지안소……내다리를꺽게 한놈두 친구를 저런병신으로 되게한 놈두 다누구겟소 알아 들엇수? 이친구』

사나히의 이가는 말은 칠성의 뼈끗마다 짤짤 저리게 하엿고、애꾸진 하늘과땅만 저주하던 캄캄한속에 어떤 번쩍하는 불빗을 던저 주는것 가트면서도 다시 생각하면 아찔해지고 땅땅 몰아간다。무엇인가 못고 십허 머리를 번짝 들엇스나 입이 깍붓고 만다。그는 시름업시저하늘을 물끄름이 보앗다。

어느듯 밝은 안개비로 자욱하엿고 먼산이 눈앞을 멈음고 구룸구름 솟아잇스며 비소리에 잠겻던 개구리소리가 그의 동네앞인가도 싶게했고 또한 큰 변의 뒷메가희나무아래 얼른 그려보인다。칠성이는부시시 일어낫다。

『나갓 집에 가겟수』

潛在해잇는病根再發時

婦人病은 原因의治療가第一

一時的局部的療法은不可

輕症이라해서 放心할수가업는婦人病

苦惱의겨울은겨우지내고、눈압헤기어드는 和暢한봄빗을謳歌하고십흔때이면서도、겨울에서봄의換節期에 婦人들에게는SOS를 發하는時期입니다。婦人病警戒의必要는참으로 일노부터입니다。

봄이차자오면는따뜻한氣候의影響으로 人體의모든機能도 俄然旺盛하게되야오는故로潛在性又는慢性의婦人諸疾患이急激한活動을일으키고、進行性에變化를일으키는것도 똑가티이時期입니다。

婦人들은、生理上、姙娠、解産等의義務를男子보다도 더집머지고잇는것임으로、身體의衛生에對하야는 特히深甚한注意를하여주기를願하는바입니다。充分한攝生을직히고、婦人病의治療法을늣지안케끔하지안흐면안됩니다。

▼月經不順

月經過少又는過多、月經皆無或은月經不順을일으키는原因은姙娠이아닌以上 꼭病的입니다。이것을그대로放任하여두어서、괴로운것을無理로참고잇스면 드듸여病勢를惡化식히여서 救할수업는不幸에빠집니다。月經時에는心身에多少의異常을일으키는바、神經이過敏하여지고、히스테리ー氣味를呈示하며、肩胛痛、腰痛、下腹의引懸、眩氣等이나서末境에는그와가튼症狀이顯著히나타나서臥病하는사람까지도不少합니다。이러한분은、平素부터婦人病이잇는분이라든지、虛弱人又는貧血症人으로甚한苦痛을밧고잇습니다。特히月經時는感氣에걸니기쉽고、그가原因으로諸病을惹起식히기쉬움으로 冷症에안걸니도록、또는身體에抵抗力을길느도록注意하는同時에婦人病에의徵候가보이면 빨니治療하는것이必要합니다。

▼子宮病

도잘들으는분은子宮病이라고하면 但只一病으로、結婚하지안흐면안일어나는줄만밋고잇는분도잇스나 이것은 큰잘못으로、적어도子宮이라는器官이잇는以上、老若을不問하고이것에걸니게됩니다。子宮病의種類는 實로한병으로、그主要한것은 子宮內膜炎으로 下腹部가잡어당기고 內股에激痛이生起하며 白帶가내리고 腰部가압흐고 身體는漸漸衰弱하고 全身은느릿하고 顏色은變하고 不姙症이되야 一進一退의病勢에서 드듸여生命까지빼앗기고마는무서운것입니다 月經障害、子宮病、上氣、頭痛、眩氣、肩胛痛、下腹痛、冷症、히스테리ー等은의줄노딱업거는것과가치매여든婦人病입으로 婦人病은局部的療法이아니라 根本的으로治療하지안흐면 未婚者는圓滿한夫婦生活에間隔을내여서 一生의不幸을招來합니다。이런婦人病의原因을除去하고 完全한健康을獲得하는데는中將湯이가장信用이잇습니다。中將湯은 多年研究의結果完成된綜合的效果를 가지고잇는原因療法藥입으로 이것을服用하면 婦人病의根本에作用하야서安全하게治療할수가잇는外에 絕對로副作用(胃腸을害하는것과가튼)이업슴으로有名합니다。

偉大한女性美를보시라

女性호르몬 이나흔

元來人間의身體는成長期를지내서若干時日을지내여老衰現象이始作되는것이나 이것은年齡關係가아닙니다。젊은분이라도 살이것칠기가쉽고 적은주름等이生起되서늙어보이는분도잇고 또中年期를經過하드라도 젊고젊은것을保持하고잇는분이잇습니다。이것은호르몬分泌이 旺盛한가안한가에依하야 支配되고잇습니다。女性호르몬은卵巢로부터 産出되는것으로 이卵巢는婦人에게對하야 特히必要한 中心臟器입니다。婦人의豐艶한肉體와麗美한皮膚 옷칠가튼黑髮 모도女性美는卵巢에서分泌되는 女性호르몬의絕大한恩澤입니다。

젊어서는時는호르몬의 分泌이旺盛하나 老齡이되추 호르몬分泌器官의機能이 漸次로衰退됨으로서나가면女性의 寶玉과가튼花容은사라지고、皮膚는 거칠어지고、白髮이붙어서 全體的으로 女性美를이러바리게되는니다。

特히 一次婦人病에 걸이면 호르몬分泌作用이 衰退되야서 血色은 날부고 顏面의美容을 죽이는 얼굴의 적은주름이 나라나고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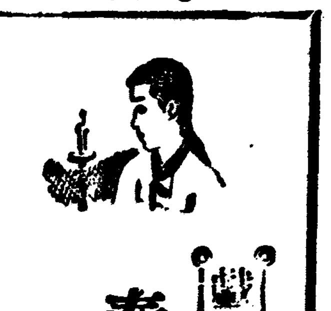
中將湯은 卵巢其他의 分泌器官의 整調를 도와서女性호르몬分泌을 甚히活潑케하야서 全身의細胞機能을 旺盛케하야、潛伏되야잇는 病根을除去하고、新鮮한血液을 養成하야 언제나 赤麗한은 健康狀態를 保持케하야서臉色이윤택하고、滑潤호르몬美를生식힙니다。

解産이便하고 살도쉬이올느게

—産前産後에쓰시라—

一家의 中心이되는 貴重한 身體! 今日의 健康은明日에 그리하야子孫繁榮의 基石이아니고 무엇입니까 貴重한몸! 그가 産前産後에는 몸의 全組織이 第一衰하기가쉽고 조곰만한 放心에서 病魔에게侵入되기쉬운때입니다。그럼으로産前을 旺盛케하고 産後를 自然케하며 疾病의豫防에努力하지안흐면 안됩니다。

그에는 中將湯이옛날부터 第一이라고하고잇습니다 中將湯은 母體를安全하게하고 惡阻를고치고 食慾을 增進케하고 安産을 圓滑하며産後에는 淨血作用을 식혀서貧血을 빨니업새고新鮮한피를 길너서살을찌게하는데 良好합니다 産前産後에는 손에서놋치말도록하기를 願합니다。



戲曲 春香傳 (六)

【禁無許上演】

柳致眞 脚色

第四幕 第一場

【登場人物】

卞學道
雲峰營將
任實縣監
求禮縣監
潭陽府使
淳昌郡守
李夢龍
妓生多數
官奴多數
使令多數
通引
吸唱
中房
書吏
羅卒多數
其他 各邑守令、男唱女唱、樂人等多數

【場面】

東軒。

卞學道의 생일잔치。 東軒뜰에는 白雲가튼 구름차일 덩그러케 놉히첫다。 東軒 大廳에는 繡屛、織屛、山水屛等各色屛風을 둘러첫고 花紋地衣紅氈海에 마회방석 총전 보료 몽고전담료를 깔고, 석가래에는 그數대로촉롱이 燈을 다랏다。

本官主人 卞學道를 비롯하야 任實縣監, 求禮縣監, 潭陽府使 淳昌郡 주州判官, 等各邑守令은 勿論이오 堂上堂下 食客들이 床을밧고 쭉 버러안젓는데 위품이 놉흠하다。

舞童兩便에는 一等名妓들이 左右로 느려서서 玉手를엇을 톡톡 더지며 춤들추는다。 그춤을 伴奏하는 가진風樂소리는 淸淸仙樂宛然하다。

大廳에는 卞學道를 中心으로 권커니 자커니 오고가는 술배床 머리에 안즌各妓生의 將進酒 노래 이床머리 저床머리에서 터저나오는 우숨소리、『엽시고조타』는 장단소리、이야기 소리 바야흐로 宴은 어울릴대로 어울린 모냥이다。 마츰내 卞學道 술이 머리에돌자 웃줄거리고 억개춤을 시작한다。 卞學道의춤에 集中되엿든 守令들은 제각기장단을 처서 卞學道의興을 도둔는다。

——한동안。

卞學道의춤이 끗나니 一同조와서 웃는다。

潭陽府使 허허허……아조 잘추는걸 변부사는 정사만 잘하는 줄을 알엇더니 행용은 그려게 잘추오?

淳昌郡守 어본그려서다가는 땅에 불지르겟소 허허허……

卞學道 이래뵈도 어려서부터 남에게 빠지지 안는 오입쟁이라오 허허허……

(一同따러웃는다)

任實縣監 오입쟁이인줄이야 아럿지만 그러케 풍류속까지 달통할줄이야 몰랏지요。 허허허

卞學道 여보 임현 그춤이 얼마나 돈이든 춤인줄 아오? 엇떠보면 내력이 길고 긴 춤이라오。 그춤때문에 어려서 매도마히맛고 돈도 마히 업샛지오。

潭陽府使 그럿케지요。 돈안들고 되는일이잇소。자 본관 한잔 바드오。

淳昌郡守 아니 내술 몬저 드오。

(여기저기서 卞學道 압흐로 술잔이 나온다。 卞學道 그술잔을 바떼키떼니 座中에 말한다)

卞學道 그런데 좌중에 긴히통할말이 잇소。다름아니라 오늘 이자리에 여러분께서 불고임근하고 와주서서 비록약주소찬(粗肴薄酒)일망정 깁부게 노라주시니 내마음은 여간 즐거운것이 아니요。이정의를 보답 하기 위하여서 나는 오늘 이좌중에다가 질하에 묘한것을 하나 구경시키겟소。

任實縣監 묘한것이라니 그게무엇이기에 허두가 그러케 대단하오?

淳昌郡守 얼른 말슴하오。

卞學道 그것이 다른것이 아니라……조그마한 독사새기지오。

一同 무어요? 독사새기요? 원본관도 취하셧구려。(座中이 서로 얼굴을보며 놀낸다)

卞學道 아주 독하고 매섭고까다룹고 응얼스러운 독삽니다 성은 성가요 일홈은 춘향이라는——

求禮縣監 오, 남원명색으로 일음난 춘향이말이로구려。

卞學道 나도 관장질을 조이떳해 해먹엇지마는 그런 독사는 처음보앗소。 고변은 일쪽이 부조흰명하고 빨의관정하야 죄당마지하나, 특히 여러손님 압헤 고변의 죽는양을 보여드리고자 나는 고변을죽이지안코, 오늘이란 이날을 두고 기다렷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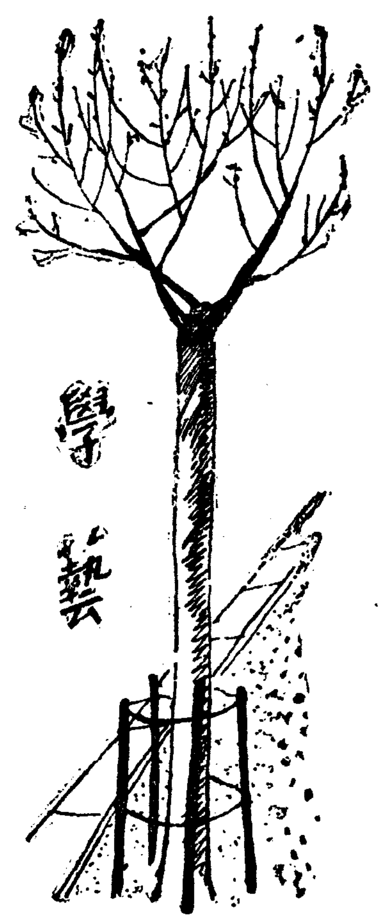
淳昌郡守 암 그래야지。 일납지석(一粒之石)이라도 필분이식(必分二食)하란 말이 잇거늘 어찌 본관 홀로 그자미를 맛본다말이요。

任實縣監 아무렴, 독락(獨樂)이 불여중락(不如衆樂)이지오。

文學修業에對한覺書

文學에對한情熱

③ 車自鳴



『文學도 또한 男兒一代의 快事業의하나』입니다。萬一 文學이 한개의 氣慨잇는 男兒로서 그一生을두고 努力할만한 價値가업는物件이라면 우리는 몸을 직이 한시밧비 그곳대를 꺽어버릴것입니다。價値업는 일을해서할必要는 업습니다。

文學의目的은 人生의 眞實을 探求함에잇습니다! 人生의 眞實을 探求함은 그것이 人類의 精神生活向上에 한糧食이되기때문입니다。우리는 瞬時라도 文學의 그目的하는바 對象과 社會的價値를 니저서는 안될것입니다。

文學의 藝術的價値만을 云謂하는 사람이잇습니다。그들은 文學의 社會的價値를 애써 否定합니다는 俗學的 藝術至上主義者一派입니다。그들은 藝術的價値와 藝術性과를 混同誤用하고잇습니다。그들이 云云하는 藝術的價値란 眞正한意味에잇서藝術性을 가라친말입니다。우리는 藝術的價値와 藝術性과를 混同해서는 안될것입니다。

藝術的價値란 人生의 眞實을 的確히 表現함을 일음입니다。人生의 眞實을 探求함이 人類의 精神生活向上에 그目的이잇다면 藝術的價値란 어느듯 그 社會的價値를 包含한말이아니면 안될것입니다。社會的價値를 떼내고서 藝術的價値를 云謂할수는업습니다。그럼으로 社會的價値업는文學은 그것이아무리高貴한藝術性을 具有하고 잇다하드래도 우리는 거긔에 少毫의 藝術的價値도 認定할수는업습니다。社會的價値잇는 文學만이眞正한 藝術的價値잇는 文學일것입니다。

生은 鬪爭입니다! 生이란現實에對한 理想的鬪爭을 가르치는말입니다。鬪爭업는곳에 우리는 生을 차즐수업는것은 勿論 또한 아모런 生의 進展도 期待할수업습니다。人類社會란 그人類가目標하는바 理想的標的에 向하야나가는 途程에서 그進路를 障碍하는 現實의障壁에對한 鬪爭의 繼續입니다。個個의人間의 生이란 이修羅場 가온데서 巨大한 人類의意志를 遂行하는 한兵卒的役割에 지나지 안습니다。

人生의 眞實이란—換言하면以上과가튼 生의鬪爭의 몸부림을指稱함입니다。文學의 役割은 이 生의鬪爭의 大海의 種種相가운데서 그 典型的인것을 明確히 反映抽出하야 그나아가는바 길을 밝히는데잇습니다。文學이 이役割에 忠實하면 忠實할수록 그人類의 文化生活에 對한指導力은 더욱더 偉大하다할수잇습니다。

『藝術家는—自己의 屬한나라 自身의 屬한階級의 귀요, 눈이요 心臟이다 그들은 時代의소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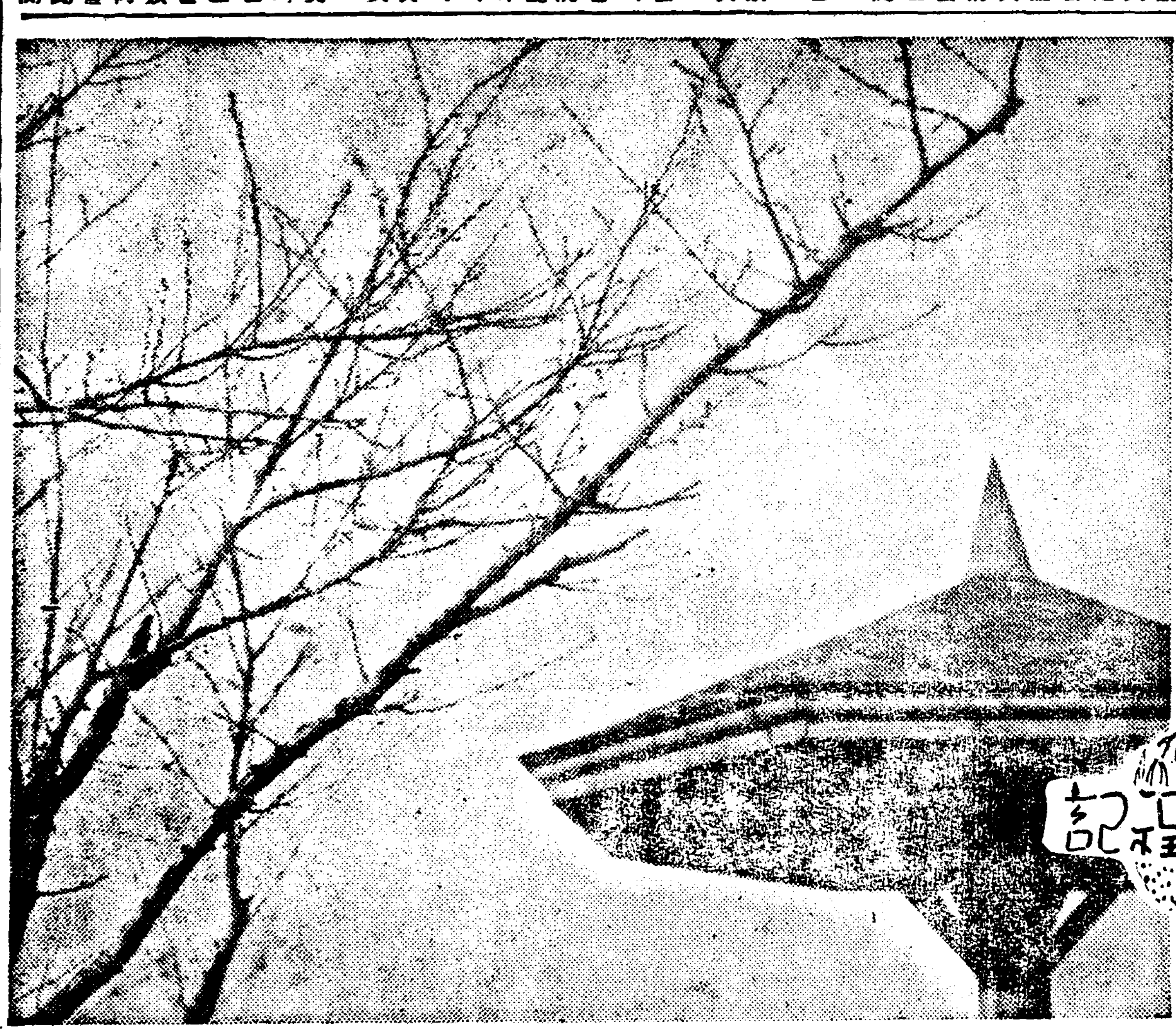
우리들의 偉大한敎師 꼴키—는 일즉이그 文學修業에 對한 覺書에서 이러케 宣言한바 잇습니다。

그럿습니다! 藝術家는 自己의 處해잇는 그時代의 거울입니다 거울임으로 그가 眞正한意味의 藝術家라면 거긔에는 少毫의欺瞞도 잇슬수업습니다。欺瞞이업슴으로 그 藝術家는 또한 그 時代의敎師이지 안흘수업습니다 藝術家의 眞正한任務는 이敎師的役割을 忠實히 遂行하는데서뿐 그天職이 存在하다할수잇습니다。이것은 特히 우리들 젊은 文學修業者에게 잇서 須臾라도 妄却해서는안될 命題라 밋습니다。 偉大한文學의 創造란 結局 現實의 混亂錯雜한 諸現象을 明確히解剖하야 거긔에서 人生의眞實을 보다더 眞摯하게 探求發掘함을 일음입니다。文學者의使命은 이것을 人類에게提示함으로서 그時代의 精神的敎師됨에 잇습니다。文學의 目的과 役割이 重且大함을 늣기지 안흘수업습니다。여긔에 비로소 文學도 또한 男兒一代의 快事業의하나인 所以가 明白해집니다

그時代에處한 人類의精神的敎師! 이만하면 文學의建設을爲하야 우리의一生을 송도리채밧처도 아모不足함이 업슬것입니다。人類를 생각하고 文化를생각하는 한 義氣잇는 男兒로서 또한 마땅히 努力할 價値잇는 事業이라 하지안흘수업슬것입니다。作家가 그文學生活을 營爲함에잇서서 이것을 分明히 認識치못하는限 偉大한文學의 創造는 永久히 그影子나마 바라보지 못할것입니다。

『文學도 또한 男兒一代의 快事業의 한아다』

作家가 그從事하는 文學에對하야 어러한 絶大의 價値를認定하고 그럼으로써 『나는 이와가튼 偉大한事業에 從事하는 귀다란 價値잇는人間이다!』 하는 傲慢한 矜持를가지는데서만 우리의待望하는바 偉大한 文學의 創造는 비로소 成就케될것입니다。傲慢이라고 함부로 排斥할것이아닙니다。우리는 作家的傲慢이란 얼마든지 推奬해야될 性質의것이라 생각합니다。



【臺樹】

어느가지가 먼저 싹트나 어느맹아리가 먼저 눈뜨나? 面紗布갓치 하늘거리는 아지랑이속에서 엿든봄빗손 그 羞澁한態度까지 이저버리려한다。

臺榭의 집웅稜角이 햇살을 버힐드시 分明하다。

천길 만길 몬지가싸여도 봄빗손 어데인가 明明한데가 잇는가바。

間島의史的考證

在來로부터朝鮮과因緣깁다

(三) 韓忠爀

이와가치無統一狀態에 잇든 女眞의諸部族은 或은內訌 或은部落間衝突로 生命財産을保全키어려워서 自然高麗治下에 들어오는者만하저서, 文宗初年에 그一部가內附한後로부터는 漸漸그들의歸順意思가熱烈하야 同王二十七年(距今八百六十四年前)엔 今咸興城川江流域에 居住하든曷懶甸의女眞部族이 附屬을請하고 또西女眞中에서도 內附를 願하는者잇섯다 그러나 女眞族中에는海賊을 營業하는者잇서 高麗의東海岸과 日本의西海岸을 剽掠하얏스니 日本歷史의『刀伊』라한것은곳女眞族을 高麗人間에서『되놈』이라稱하는것이 訛傳된것이다 여긔한가지記載하야 둘것은文宗二十七年에 曷懶甸이附屬을請하든해로부터 四十年前인 高麗德宗二年에 女眞과 境界하기爲하야 鴨綠江口로부터 和州(永興) 定州(定平)等十七城을 經하야 都連浦(今咸州郡連浦面海岸)에 至하기까지 千餘里長城을築하얏스니 現今도遺蹟에서 其遺跡을 實踏할수잇다

●完顔部의强大 豆滿江北에잇든 女眞의完顔部는 처음에는 그勢力이微微하더니 이酋長烏古廼때에이르러 자못强盛하야 그아들 盈歌때에는 四隣의 生女眞을討平하고 更히南下又南下하야 이미 高麗에歸順한 曷懶甸의女眞部落(即咸興平野)을經略하고 그中不服한曷懶甸人을逐하야 定州長城越來하니 此時는 高麗肅宗九年(距今八百三十二年前)이니 完顔酋長烏雅束때이엿다 此報告를 바든 麗廷에서 林幹에게命하야 討伐케하얏스나 戰勢가不利하니 또尹瓘을代派하되 亦是戰勢가不利함으로 一時和盟하야 定州長城以北의地는 다시完顔部治下에 드러갓다

●尹瓘의再出征 尹瓘이도라와戰敗의原因을奏하고 再出征을建議하니 肅宗께서 大發憤하시와 再次討伐키爲하야 諸般準備中에 昇遐하시고 次王睿宗께서 父王의遺志를繼하사 二年에尹瓘을元帥로吳延寵을 副元帥로삼아 完顔部女眞을 征伐케하니 此時總兵數가十七萬인데 水陸兩方으로 出動하야 連戰連勝하야 村落을 破함이 百三十五요 首를馘함에 近五千이오 俘虜가 또한半萬을 超하얏다 尹瓘은 그땅에 九城을設置하니 咸州(今咸興) 福州(咸州郡上朝陽面塔洞里鷗古堂古城) 英州(新興郡加平面東興里古城) 雄州(咸州郡退潮面城東里古城) 吉州(同郡德山面上岱里古城) 公嶮鎭(同郡德山面大德里古城) 通泰鎭(同郡雲南面雲城里驟毬亭) 眞陽鎭(同郡上岐川面金山城) 崇寧鎭(同郡川西面上雲里中峰古城)이이것이다 此九城에南方의 民戶를移住하고 三年四月에 開京에凱旋하얏다 그러나 一時巢穴을失한完顔部는 入朝貢納하겟다는 條件으로 九城還付를懇請함으로 高麗朝廷에서此를許施하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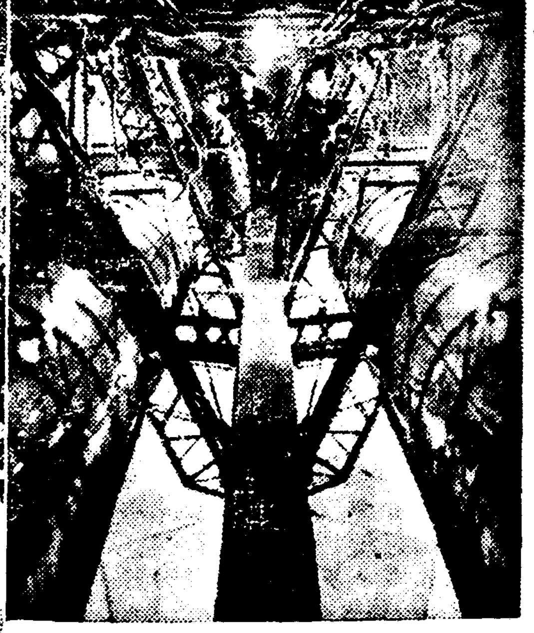
漢詩

春雲—押花 桐崗考選

一等 京城府 金在翼

鬱葱佳氣萬人家。
雲在春空散彩華。
駘蕩層陰青欲雨。
氤氳瑞色紫生花。
末作奇峰猶醞藉。
爲開妍日忽橫斜。
圖畵難摹多態度。
一從靄靄混煙霞。

評曰 韓昌黎之君詩多態度藹藹春空雲其惟此詩之謂乎又曰五六非惟警策而深有寄托



空中의王者 第二「쳅펠린」二九號는 世界最大를 目標로하고 프리드릭히스하—펜 飛行船製作所에서 製作中이든바 最近完成되엿는데 이飛行船은 모든科學的精髓를다해서 特히 豪華를 가추운것인데 寫眞은 그 食堂과 客室의 一部이다。

물중에무거운물

重水란어떠한것? (下)

丁遠日

이가티 高價인重水를 西洋서는 별로 아까운줄도 모르게 먹고잇다 오스로—의 크라우스、한센敎授는 九十八%의 重水를十그람이나 먹엇다 萬端準備를다해노코 同僚들의 監視中에 먹엇스나 氣分이좀나빳슬뿐이요 別로히 큰危險은 업섯다고한다 十二그람이면 千五六百圓가량이나된다 그리고 身體에、그리큰 異狀이 이러나지안흐면 그排出量卽 尿量의檢査가 主要한 研究對象이된다。

그러면 大體 重水는 生物學的으로는 엇더한 作用을 가지고잇느냐。 文獻을 參考하야 大略다음과가치생각할수가잇겟다。 담배種子를 五十%重水中에너으면 普通물에너은것보다 半이나速히 싹이난다。百%重水中에서는 싹이나지못하고 三週間以上너어두면 싹이 永永나지못하게된다。그러니 濃度가 甚하면 發育을阻止하고 濃度가 弱하면 發育을助長한다고 생각할수잇겟다。低級한植物은 抵抗力이一般으로세다。지부스菌、球菌等은 培養基에 九十四%重水가包含되여도 活潑히繁殖한다。虫類、小魚等을 濃度가甚한 重水中에 너어두면 마츰내 죽어버린다 一般으로 動物은 植物보다 重水에對하야 더銳敏하다。高等動物及 人間에對한研究는 매우적다 重水를 먹으면 數時間內에 身體內에 分布되며 十日後에 約半量의重水가 나오고 全量이小便、汗其他 排泄物中에 석겨나오라면 十四日間을 要한다。重水의맛은 엇더하냐。普通물과갓치 無味하다고하나 簡單히 그러케 생각할수만도 업고 量이적을때는 조곰甘味가잇고量이만흐면 조곰쓴맛이도는것갓다고 한다。

鼠類에게 重水를주면 別로中毒狀態를이르키지안는다。家兎는多少、中毒狀態를 이르키는듯도하나、呼吸、脈膊、血壓、白血球數等은 別다른差異를볼수업다。그러나 이런動物에게 大量의重水를皮下에注射하면 中毒狀態를이르킨다。卽 唾液分泌가만하지며 運動하기를실혀하며 맥이업서보이고 呼吸도 大端히엿허지며 가장特異한것은 꼬리를空中을向하야 벗처들고잇는點이다。其後에는 도로혀 普通때보다 運動을甚히하며 大端히不安해보인다。그러다가 五、六時間을지나면 普通狀態로回復된다。아직은 이만한狀態에머무러잇슬뿐이오 그生物學的作用을 充分히알지못하고잇다。今後아마 이方面에도 만흔 業績이나올것이요 이特異한存在에依하야 그리고 이것의불的關係를 좀더闡明함으로써 우리生物界方面에 엇더한光明을줄날도 차저오리라고 생각된다。

—끗—

尋牛莊散詩 (三)

萬海

쥐(鼠)

나는 아모리 조흔뜻으로 너를 말하야도
너는 적고 방장맛고 얄미운 쥐라고 밧게 할수가업다
너는 사람의 結婚衣裳과 宴會服을 낫낫치 조서노앗다
너는 쌀궤와 땃며사리를 다 조고 무러내엇다
그외에 모든 器具를 다 조서노앗다
나는 쥐돗을 만들고 고양이를 길러서 너를 잡것다
이 적고 방장맛고 얄미운 쥐야

× × ×

그러타 나는 적고 방장맛고 얄미운쥐다
나는 너의가 만든 쥐돗과 너의가 기른 고양이에게 잡힐줄을 안다
만일 내가 너의 衣欌과 倉庫를 통거리채 빼앗고
또 너의집과 너의나라를 빼앗으면
너의는 허리를 굽혀서 절하고 나의 功德을 讚美할것이다
그리고 너의들의 歷史에 나의이름을 크게 쓸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큰죄를 지을만한 힘이 업다
다만 너의들의 먹고 입고 쓰고 남은 것을 조금씩 엇어먹는다
그래서 너의는 나를 적고 방장맛고 얄미운 쥐라고 하며
쥐돗을 만들고 고양이를 길러서 나를 잡으라한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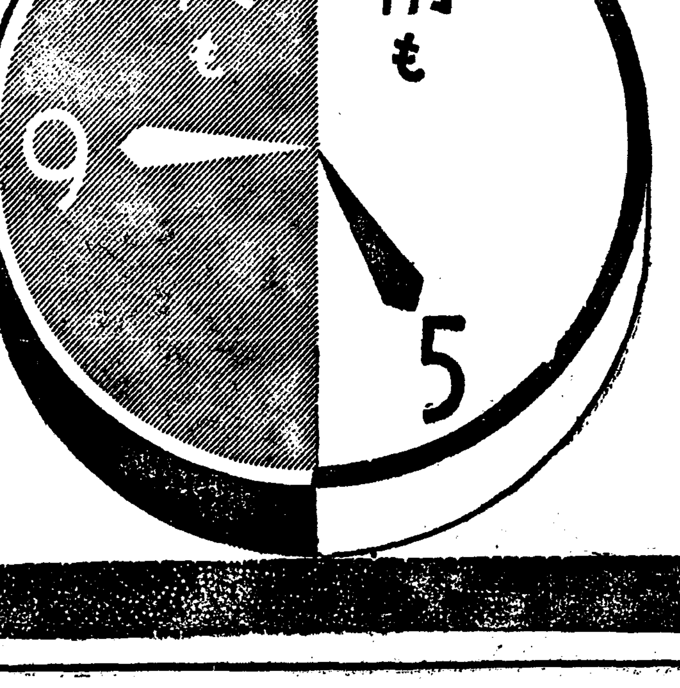
나는 그것이 너의들의 哲學이오 道德인줄을 안다
그러나 쥐돗이 나의 덜미에 벼락을 치고 고양이의 발톱이 나의 염구리에 새암을 팔때까지
나는 먹고 마시고 뛰고 놀것다
이 크고 점잔하고 귀여운 사람들아

讀者交友室

▲저는新聞雜誌를 多讀코저하오나經濟가 容許치안흠으로各新聞雜誌를 다살수업는즉 朝鮮서發行하는月刊雜誌 一二個月쯤은드레도廉價로 讓渡分讓하실이는誌名과價格을讀者社交室로一報하서요

▲安邊支局여러先生님께·못습니다 日前昭和十一年二月二十三日(日曜日)朝刊第三面에掲安邊罹災民救濟金十圓을보내인 安邊李英玉氏를알지못하여 못차오니 任細히社交室로 下敎하여주시십시요 本籍은어데이며 年歲는? 그리고以前에는 어데서 게시엿든지 安邊支局여러先生님을 未安하오나 任細히 下敎하여주심을願합니다

半煉の仁丹齒磨



獨特完璧된·半煉質齒磨·創成의榮譽를다한
最新의齒科醫學에依한口腔衛生과美齒効果滿點
其外大量生産에依한最低價와日用의經濟性無比
眞正擧國的愛用을 期待할齒磨의 第一品으로!

專賣特許 第108687號

仁丹本舖·森下營業所

黃昏 【49】

韓雪野 作 安夕影 畫

옮기는마음 (二)

어중 사장실로 올라가는 층층대에서 경재는 내려오는 려순이와 마조첫다。

「아、오섯서요?」

하는 려순의 얼굴에서는 너무도 빨리 반가운기색이 사라지고 만다。동작이 까라지고낫빗이 핏숙해 보인다。

「어제스밤에는 실례 햇습니다」

하고 경재는 어제스밤에 간다구 하고 가지못한데 대하야 사과하는 뜻을 표한다。

「천만에요……」

이러케 말하는 려순은 벼인가 의심되도록 생기가 업서보인다。약속을 어겨서 노염이생겻나? 하는 생각도 해보핫스나 그런것 갓지도 안타。일즉 약속을 어긴때에 그가가지든 노염은、좀더 생기가 잇섯고 좀더 농웅적이 아니엇든가?

「웨 몸이 불편하십니까?」

「아니에요」

「매우 거색이 조치못한데요?」

「……」

「편찬으시면 병원으로 가십시다」

「아니에요……사장、만나시겟서요?」

하고 려순은 뒤를 돌아보며 한계단 올라선다。그것이、마조서서 얘기하는것을 꺼리는것가튼도、또는 그만 가버리라는뜻인것가티도 보인다。

「아니 별로 그런것도 아니고……그저 겸사겸사해서 왓습니다」

사실 경재는 려순이때문에 차자온것이나 어쩐지 이자리의 공기가 서먹서먹해저서 엉거주춤하니 이러케 말한다。

「사장이 지금、꼽이 잔뜩 나섯서요」

「꼽이요……웨요?」

「그저께밤에 우리가 구경가는걸 봣대나요」

「네?」

「봣대요?」

「그러면 어떤가요?」

「그러치만……」

「그래 뭐래요?」

두사람은 이러케 말하며 이층 로대(露臺)로 나왓다。

「아니 별말은 업서도……」

하고 려순은 저옥히 망서리는 상이다。

「글세 그대루 말슴해보시우」

「아니、저는 조금도 상관이업슴니다만 선생님 때문에……」

「도 선생님이에요? 그럼 균둥몽어는 인제 다집어치시우。경재라는 훌륭한 일홈이 잇는데

「하하하……」

하는 경재는、려순의 말에서 그에게대한 의심이 풀리는 한편、사장에게 대한 의혹이 왓스나、그러타고 좀한 태도를보이기가 실혀서 위정 큰소리로 명랑히 우스면、

「뭐레요?」

하고 재처 뭇는다。

「무종 하지、축하하겟서요。호호호……」

「무종합권 뭐에요? 제가 남의 사생활까지 간섭할 권리가 잇서요?」

「그래도……사람은 처신을 잘해야 하다구요。모처럼 자기가 사랑해주는런인데 그러케해서되겟느냐구요……」

「그말뿐이에요?」

「그리고 또……」

하다가 려순은 경재를 빤이 처다보며 말을 멈춘다。

「그리구 또 뭐레요?」

「……」

「그리구요。경재씨는 훌융한사람이요、점도 잇는 사람이요또……」

「또 뭐레요?」

「……또 이미 안해될 사람이 잇는 사람이데 려순이가 상가야 하지안캣느냐구요。경재씨집이나 자기집으로 말하면 가령 그런처지못해서 일호반점이라도 처신을 그릇처서는 안될건데 려순이가 그걸 처다 알면서 그러느냐구요……」

「그리구 또……최다 얘기해 보서요。그래야 나도 사장을 그만큼 알고 대하지안캣서요」

「알말도 마서요。아주 모르는척 하서요。아시는 내색을 보이시면 제가 고자질하는 사람으로 알지안허요」

「글세 념려마서요。뜻을 봐구리를 못하다구 그랫어 불평은 나도 잇스니 말슴하시우」

「그것뿐 이에요。지둘 레다밤하지 안허서요」

「아니 더 잇습지니다만」

「업서요 업다니까요」

「글세 그러지말구……맹도링강진작해요」

「아니에요、장말이에요」

「말슴 안하면 그건 나를 밋지못하기때문이겟지요。그때안어요?」

하는 경재는、사장에 못지안흔 애숭지 예감 추리할수는잇섯다。말끗이 그만큼 엉리엇스니까 별별 야비한 소리가 다 나오고야 말앗슬것이다。

하나 려순은 그이상 버딸하려하지안는다。

「말슴하서요。상관업서요」

在東京朝鮮人 卒業生紹介音樂會 感想的批評

張飛

1

一九三六年度 東京各音樂學校卒業生演奏會가 神田區駿河臺下Y、W、C、A、홀에서開催되엿다。

聲樂部 테너ー 四人 소푸라노 三人 빠리톤 二人
器樂部 피아노 二人 바이오린 二人

인데 피아노에서한사람 바이오린에서한사람이事故로因하야 出演하지못하게되고 바이오린中에 한사람이獨奏하다가 中途에退場한일이잇고 其他卒業生中에 今番紹介演奏會에 參加하지안흔분이二三人잇다고한다。

2

聲樂에잇서서는 發聲法의土臺인 自然發聲 呼吸法 共鳴法等의問題는完成의解決을찻기가 困難하지만 어느程度에서 發聲法의 過程을 차즐수가잇고 發音과 唱法의着想을 겨읍니하지안흔眞實한態度를가진분도잇다 一一히 舵足을羅列할 必要를느끼지안치만 特色만을 몃곳指適하는대서 끗치고저한다。

一소프라노 崔聖子氏의 歌劇리고렛토中『사모하는그대』와테너ー 崔昌殷氏의歌劇사랑의藥中『참는눈물』의 唱法이 조왓고 明朗한音色과 漸強法의 效果를내기爲해서는 自然發聲으로부터 오는共鳴法과 音量을要求하고시펏다 音量은豐富하지못하지만은 소푸라노 金聖業氏와 테너ー朴浩允氏의소리는(發聲)自然스러운곳이잇섯다 呼吸法으로부터 上共鳴의妙理를 體得하기를바란다 特히朴浩允君의 聲量과 現在立場과處地에잇서서 尤曲을選擇하지안코 平凡한 歌曲을 選拔하엿음을智慧잇게생각하운다。

發聲法으로因하야 苦心하게되는 田大鴻氏와崔熙男氏는 唱法의不自然한感을 늣기게한다 빠리톤崔熙男氏는 豐富한實力도가지고 聲量도잇고 解釋도조흔데 自然發聲으로오는 上公鳴의原理를차저야할것을 自信할수잇기를바란다 喉을매여끄는듯한 元動力과도가튼 胸部의公鳴의勞働力을차즐수가잇섯다 그러나너머무거우면 노픈소래를 할때라든가 기ー르게 끌때라든가 長時間演奏의不快症을 이르키기쉬운까닭이다。테너ー田大鴻氏는 노픈소리에올너가서는 全然목안을열수가업서서 좁혀지는목에힘이들고 發聲에着念하나 自信업시恐怖가온대서 노래를부르게되엿다 決코落望하지말고 自然發聲法으로 治療할수잇슴을自醒할줄밋는다。

빠리톤蔡洙興氏와 테너ー李安道藤亞氏는 呼吸法의 未熟으로부러生겨나는 잔물결가튼 速한音波의『비부레이숀』과 느즉비부레이숀의 相對的特色을 分別할수가잇다 빠리톤에서는 목안을 열어서 …… 捕할수 잇스나 ……잇게 떠오로지못하고 明瞭한『비부레이숀』으로부터오는 彈力이 微弱하다 테너에서는 목을좁히고 自然스…… 리에가서 목에힘이드려간다 纖細한『비부레이숀』은 天性으로 타고난것이아니고 목에서 만드러지는 原因이 呼吸法認識不足으로 發生되는것이다。

器樂에잇서서는 文明珍氏의피아노 彈奏에서 沈着한 態度와 精神集中의 着想이 조왓다 렝거리아 狂想曲의 苦心한練習의努力을 發見할수잇섯고 바이올린洪志裕氏의 모찰트콘첼트에서는 旋律이 金방울처럼 빗나면서 굴어단이는소리를 發見할수가잇고 餘裕와 能力을 뚜렷하게나타낼수가잇섯다。

3

今番 卒業生中에 大部分이 研究科에서 二三年을 더 研究繼續하려고 決心하고 잇슬뿐아니라 未完成技術者임을自覺하리라고 生覺된다 그럼으로 學校에서는 基礎를 닥고 研究發表와 音樂藝術과 客觀的(社會活動)條件은 卒業할때부터 새로히 展開되는 苦境인 새形態가 卒業生들아페 나라나게되는것이다。그럼으로 우리들이 樂壇에서活動할때에 情實關係라든가 個人事情과 私感情을 떠나서 藝術과 社會性의認識과 民族藝術運動時代의 새로운 現段階인 課題라든가 生活과音樂의 鍛鍊的交流의 理解와 歌劇(오페라 오페렛타)時代性을 確實히 認識하는同時에 擁護와 相扶相助와協同과 連絡(音樂하는사람의 心理를 第一音樂하는사람이 잘理解할수잇다)을 等閑히할수가 업다는것을 깨닷게될줄안다 第一感覺的이고 主觀的인 音樂藝術家들의 社會的地位가 어떠타는것을 말해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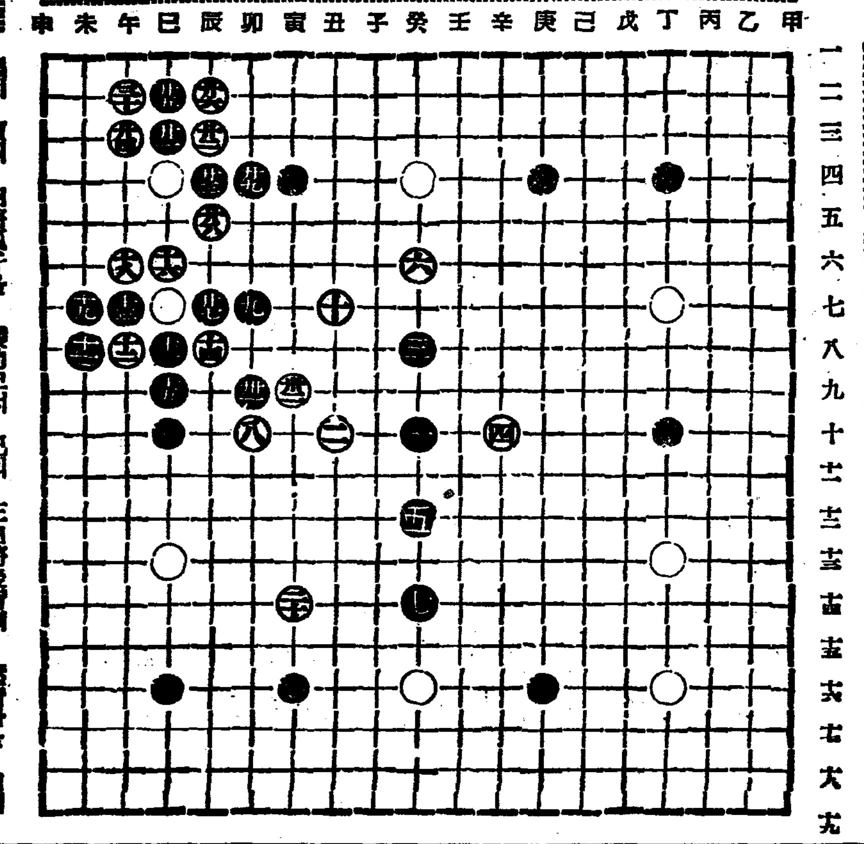
寫眞은 張飛氏

趙澤元舞踊團에서는 四月六日부터 十日까지 毎夜三回 市內若草劇場에서 ……外九種의舞踊을 公演하리라고 하는데 寫眞은趙氏의舞姿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2=

白 梁穩文
黑先 柳鎭河

●二七 未의八
○二八 午의六
●二九 未의七
○三〇 寅의十四
●三一 巳의三
○三二 辰의三
●三三 辰의四
○三四 午의三
●三五 巳의二
○三六 辰의二
●三七 辰의七
○三八 辰의五
●三九 卯의四
○四〇 午의二
●四一 卯의九
○四二 寅의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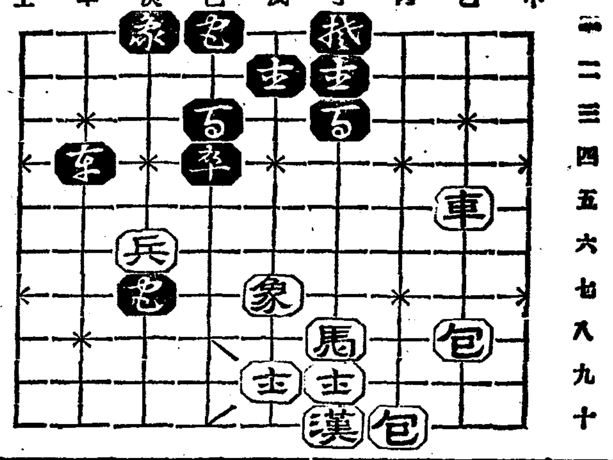
◆對局者談

黑이 寅의 四路孤子를 援助코저 巳의 三白將後著에 羅着함을 白이 辰의 三으로 內應함은 時機에 依하야 或 使用은 하지만 正規는 안인듯 黑이 辰의 七로 斷하야 連絡取함을 白이 不顧하고 辰의 五로 黑을 斷한후 午의 二로 黑一點捉取함은 自衛上에 近似한듯 黑이 卯의 九로 蔦門을 列置할때 白이 寅의 六으로 中斷을 할듯하나 寅의 九로 連絡함이 適當을 包含함인가하노라

本社主催 將棋名手對手局譜 (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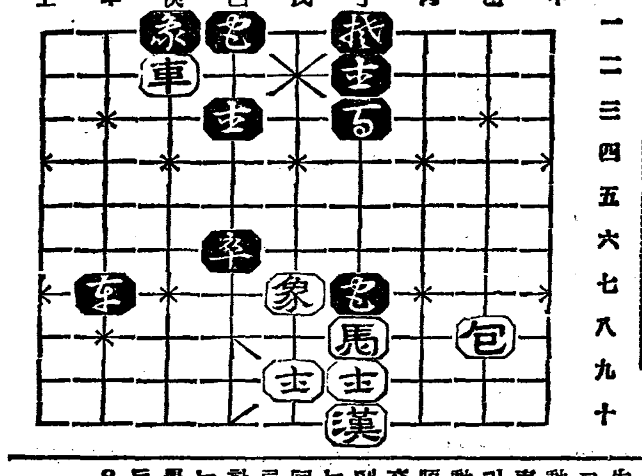
漢一兵先手 李在鳳 對 金漢榮

◀十六手圖▶



◀十七手圖▶

庚六兵—己六
辛四—辛七
乙五車—庚五
己四—己五
庚五車—庚二
己五—己六打兵
丙十包—己十
庚七—丁七
己十包—己三打馬
呼將
戊二—己三打包



라디오

三十日 (月曜)

◇午後六時 童話『기념비』 崔仁化
◇同六時二五分 經濟解說 徐椿
◇同七時三〇分 講演『生活의科學化』 李萬珪
◇同八時 빠이올린獨奏 一、協奏曲뻬렐니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 第二樂章 아다지오 第三樂章 알레그로 二、빠이올린소나타 G長調 베ー토ー벤作曲 第三樂章 랩포ー의・메누엣토・마・놀로 모데라ー토ー에・그라치오ー도 三、차르다스몬티作曲 피아노伴奏 李興烈 桂貞植
◇同八時三〇分 伽倻琴併唱 一、短歌어화靑春 二、唱調타령 歌手 金錦玉 池龍九
◇同九時 古談『入王寺에復讐』 朴眞成
◇午前一〇時三〇分 家庭講座
◇同零時五分 音盤
◇同二時(東)婦人體育講座
◇同六時 피아노獨奏
◇午後七時三〇分 趣味講座
◇同八時 바이올린獨奏
◇同八時五〇分 라듸오、드라마

三十一日 (火曜)

◇午後〇時〇五分(東) 管絃樂 新交響樂團
◇同三時一五分 通俗家庭講座(八) 金秩甫
◇同五時〇〇分 梨花女專合格者發表
◇同六時 라듸오少女小說『先生님도우시엿다』—李瑞求作— (配役) 선생……金小泉 어머니……朴明淑 일순……金順姬 玉順……尹貞淑 效果 金浩升 指揮 金虎俊 京城어린이放送會
◇同六時二五分 經典解說 尹乙洙
◇同七時三〇分 講演『어떤方法으로事物을探求할가』
◇同八時 平壤歌外 李晶燮 一、平壤歌 二、博物打鈴 三、鸞壤歌 四、金剛山打鈴 五、開城난봉가 六、楊山道 崔貞植 伽倻琴 李忠善
◇同八時三〇分 映畵이야기『걸어가는照子』 朴應冕
◇同九時 歌詞 一、길軍樂 二、乾坤歌 金蕉紅 金鳳仙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東)家庭講座
◇午後零時五分(東)管絃樂
◇同二時(東)婦人時間
◇同六時(大)音樂物語
◇午後七時三〇分(大)講演
◇同八時 地唄
◇同八時三〇分(東)[illegible]

曆

三月卅一日 (火) 陰三月壬辰小(初九日) 壬子·木·實·收
●淸明 四月五日(舊十四日)
●穀雨 四月二十日(舊二十九日)

各學校入學試驗問題

槿花女子實業學校

國語科 (讀)

一、漢字ニ讀假名ヲ附ケナサイ。

1、並木 2、瑞祥 3、搜索 4、峠 5、蘊奧 6、莊重なる 7、留守の者 8、笑ひ興じてゐる 9、促す 10、流石 11、雜木林 12、天晴 13、贈 14、綿帽 15、翻す 16、街道 17、惠澤 18、富士は萬古の雪をいただいて雲上高く 聳えてゐる 19、長くも 20、百尋

二、片假名ノトコロヲ漢字ニ改メナサイ。

(1)世にもアリガタクトウトいユライがあるのです (2)ケサラクセイシキをアゲたばかりの學校のシヤシである (3)イトマゴヒして (4)デンポウでゴアンピをおタヅねいたしたのでございます (5)身におふ國キヨウケイビのデユニンに心をハゲまし 一スヂにお國のタメにどホウコウ申し上げます

三、解釋

(1) 老樹の終始一貫した根氣。
(2) 國運の隆昌は期してまつことができます。
(3) 德望また一世に秀でた偉人であつた。
(4) 看護のかひもなくつひに不歸の客となつた。
(5) たまたま歐洲戰爭がおこり飛行機は最新鋭の武器として或は偵察に爆擊に、或は戰鬪に輸送に遺憾なく、その偉力を發揮した。

國語科 (小)

一、漢字ニ讀假名ヲ附ケナサイ。

1、影響 2、趣 3、例へば 4、田舍 5、名殘 6、硫磺 7、團扇 8、重寶な ものだ 9、甘蔗 10、恭しく 11、小春日和 12、頻繁 13、紺青 14、富岳の體である 15、租 16、臨 17、無愛想な 仕向 18、會長 19、臨終 20、朱の廻廊 21、風[illegible]

二、片假名ノトコロヲ漢字ニ改メナサイ。

(1)テキタウコウヘイな サイバン (2)ウスズミイロに タれて行く (3)バクフ(幕)の サウクワンをウツしたもの (4)カレが タンケンセンびしぐるガウに ノリこんで イキヤウヤウと本國を シユツパツしたのは 二十三サイの時である。 (5)イタヅラに 多くの時日をツイヤした。

三、解釋

(1) 防備をささ怠りなし。
(2) 記事に多少の相違あるを常とす。
(3) 今日餘の産として世に知られるやうになつたのは養魚經營の賜である。
(4) 海の靜かなること鏡の如く朝日を負ひて島がくれ行く白帆の影ものどかなり 月影のさゝなみにくだけ漁火の波間に出沒する 夜景もまた一段のおもむきあり。

算術科 (其一)

1、次ノ問題ヲ計算シナサイ。

(イ) $12+\{54-(84-4)+26+2-(18-16+2)\}\times2-2-13=$

(ロ) $2727+13.5+1.5\times16-226=$

2、次ノ諸數ノ和ヲ横線ノ下ニ書キナサイ。

(イ)	(ロ)
0.691	4099830
15.028	2114804
8.144	826456
58.376	768558
26.702	704375
2.609	515077
0.024	

3、甲乙ノ兩人5ト3ノ割ニ出金シテ商業ヲシタラ1380圓ノ利益ガアッタ, 乙ハ業務ヲ引受ケタカラ利益ノ $\frac{1}{3}$ ヲ取リ殘リヲ出金高ニ比例シテ分ケタ, 兩人ノ分前ハ各何程カ。但シ式、運算及ビ答ヲ書キナサイ。

算術科 (其二)

注意各題共式, 運算及ビ答ヲ書キナサイ。

一、2割8分ノ利益ヲ得テ96圓デ賣ッタ品ノ原價ハ何程カ。

2、年利7分5厘デ4年4月間ノ元利合計ガ662圓50錢デアルト 元金ハ何程デアルカ。

3、一株ノ拂込金額25圓ノ或製造會社ノ株式7株ノ株主ハ配當率7分ノトキ幾ラノ配當金ヲ得ルカ。決算ハ年一回デアル。

4、甲地カラ乙地マデノ道程ハ甲地カラ丙地マデノ $\frac{3}{4}$ デ乙地カラ丙地マデハ甲地カラ乙地マデノ $\frac{2}{3}$ デアル, 甲地カラ丙地ヘ直ニ行クトキノ道程ハ乙地ヲ經テ行クトキノ何分ノ何デアルカ。

5、或仕事ヲナスニ甲一人ニテハ15日カカル, 兩人協力スレバ幾日ニテ出來ルカ。

咸興公立高等普通學校

國語 (甲 其一)

一、左ノ文ノ——ノトコロヲ解釋シナサイ。

先生は四百三十餘年前、今の慶尙北道安東郡陶山面に生まる。生後幾何もなく(1)父を失ひ、赤貧(2)の中に人となりしが、健氣なる(3)母の敎を守りて學問にいそしみぬ。

1.
2.
3.

二、次ノ漢字ヲ二字ヅツ組合セテ熟語ヲ五ツ作リナサイ。

速 技 突 援 齒 忠 度 烈 競 如

1.( ) 2.( ) 3.( ) 4.( ) 5.( )

三、次ノ漢字ノ右側ニ讀假名(ヨミガナ)ヲツケナサイ。

1. 由緖 2. 行方 3. 屏風 4. 天晴 5. 御稜威

四、次ノ〇〇ニ適當ナ文字ヲ入レナサイ。

1. さし昇る〇〇の如くさわやかにもたまほしきは心なりけり。
2. 一同血湧き肉〇る思があつた。
3. 過ぎたるは〇〇〇ざるが如し。

國語 (甲 其二)

一、左ノ文章ヲ讀ンデ次ノ問ニ答ヘナサイ。

或夏の中、宣長は かねて(1) 買ひつけ(2)の古本屋に行くと、主人は愛想よく迎へて、『どうも殘念なことでした。あなたがよく合ひたいと御話しになる江戸の賀茂眞淵(かもまぶち)先生が先程御見えになりました。』といふ。あまり思ひがけない言葉に宣長は驚いて、『先生(3)がどうしてこちらへ。』『何でも山城・大和(やまと)方面の旅行(4)がすんで、これから參宮をする(5)のださうです。』

問 (1) かねて トハドウイフ意味カ。
答
問 (2) 買ひつけの本屋 トハドウイフ本屋カ。
答
問 (3) 先生 トハ誰ノコトカ
答
問 相手ヲ尊敬シテ云フ時 旅行(4) (5)するハ何トナホシタラヨイカ( )内ニ記入シナサイ
答 (4) 旅行 ( )
答 (5) する ( )

二、次ノ文中——ノヒイテアル片假名ヲ漢字デ( )ニ書入レナサイ。

ハフリツ( )ハ、國家トイフキヨウドウセイクワツ( )ヲ、秩序アリ カツ カウフク( )ナモノニスルタメノ キソク( )デアルカラ、イヤシクモ國民タル者ハ カナラズ之ヲ・マモ( )ラナケレバナラヌ

綴方

文題『老人』文體ハ口語體、假名ハ平假名デ別紙ニ書キナサイ

國語 (乙)

一、次ノ文ノ——ノトコロヲ解釋シナサイ。

我もとより 衣食の資(1)をいとふにあらざれど、何時までもかく(2)ておはすべきにあらねば、今は何處へなりとも行きて君の技をふるひ給へ。愚僧も所用ありて京に上り、或は一二年 留在(3)せんもはかり難し。

1.
2.
3.

二、次ノ漢字ヲ二字ヅツ組合セテ熟語ヲ五ツ作リナサイ。

反 好 順 至 序 風 誠 省 情 機

1.( ) 2.( ) 3.( ) 4.( ) 5.( )

三、次ノ漢字ノ右側ニ讀假名(ヨミガナ)ヲツケナサイ。

1. 屛風 2. 家賃 3. 注文 4. 細工 5. 重寶

四、次ノ〇〇ニ適當ナ文字ヲ入レナサイ。

1. さし昇る〇〇の如くさわやかにもたまほしきは心なりけり。
2. 日の丸は熱烈〇ゆるが如き愛國の至誠を表す。
3. 『必要は〇〇の母。』である。

算術科其 (一)

(1)次ノ計算ヲナセ。

(イ) $(\frac{2}{3}+1\frac{7}{9}-\frac{8}{15})+(3\frac{6}{7}+\frac{5}{8})$ 答

(ロ) $734.75+0.183-3.37+1.025+4.52-0.9$ 答

(ハ) $7\frac{13}{20}+1.73\times9-3.6+0.2$ 答

(ニ) $6\frac{3}{2}:5$, $\frac{3}{7}:2\frac{4}{5}$ 複比ノ値 答

(2)甲乙兩矩形ノ縦ノ比モ横ノ比モ4:3デ, ソノ面積ノ和ガ175平方糎デアルト各面積ハ何程カ。 答

(3)1晝夜ニ3分遲レル時計ヲ今日ノ午前8時ニ 正シイ時計ニ合セテオクト, 明後日正シイ 時刻ノ午後6時ニハ此時計ハ 何時ヲ指サスカ。 答

(4)本校ノ入學志願者ガ本年ハ641人デアルガ昨年ハ541人, 1昨年ハ436人デアッタ。1昨年ノ志願者ニ對シ昨年ノ志願者ノ增加歩合ト昨年ノ志願者ニ對シ本年ノ志願者ノ增加歩合トハドチラガ幾パーセント大キイカ。但シ小數1位未滿ハ四捨五入 答

(5)毎時4kmノ速サデ 10時間歩イテ3日カカル道ヲ, 毎時毎日4.5kmノ速サデ毎日10時40分ヅツ歩クト出發シテカラ第何日目ノ何時ニ着クカ。 但シ毎日午前8時半ニ出カケルモノトスル。 答

算術科其 (二)

(1) 次ノ計算ヲナセ。

(イ) $1+2\times3-4+5+67+8\times9$ 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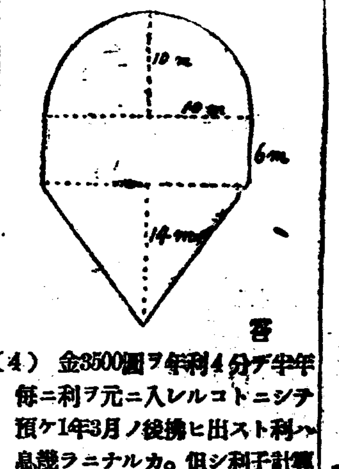
(ロ) $\{17-(2\frac{1}{8}-1\frac{1}{4})\times3+075\}\times\frac{4}{9}+22$ 答

(ハ) 50ノ2乘ニ16ノ37倍ヲ加ヘルト幾ラニナルカ。 答

(ニ) 821170.4663÷17 商ト餘リトヲ求メヨ。 答

(2) 自動車ガ5km行ク時間ニ自轉車ハ3km行クト、自動車ガ午前10時カラ午後時マデカカル道ヲ自轉車デ午前9時ニ出發スルトイツ着クカ。但シ自動車ハ休マズニ進ミ、轉車ハ途中デ1時間休ムモノトスル。 答

(3) 校庭ニ下ノ圖ノヤウニ花壇ヲツクルト……ハ幾……ルカ。



答

(4) 金3500圓ヲ年利4分デ半年毎ニ利ヲ元ニ入レルコトニシテ預ケ1年3月ノ後拂ヒ出スト利息ハ幾ラニナルカ。但シ利子計算デ1錢未滿ハ切リステル。 答

(5) 兄弟2人ガ共同シテ總資本金1300圓デ商賣ヲ始メタ。兄ト弟ガコノ資本金ヲ8ト7ノ割合ニ分ケテ各品物ヲ買ヒ入レテレ之ヲ賣リ拂ヒ、兄ハ賣上金1160圓ヲ得弟ハ買入値段ノ7%ノ損ヲシタ。

問(1)弟ノ損ハ幾ラカ。

問(2)兄弟2人ノ損益勘定ヲマトメテ總資本金ニ對シテ考ヘルト幾割ノ損カ又ハ益カ。 答

海州公立女子高普

國語科 (讀國) 第一回 其一

一、左ノ文ヲ讀ンデ次ノ問ニ答ヘナサイ。

やがて、南西はるかの水平線上に濛氣をついて進み來る敵の全艦隊が見え出した。時に午後一時四十分。刻一刻と近づく敵艦隊を見れば、大小合はせて三十餘隻の艦艇が、北々東の針路をとつて眞一文字に進んで來る。かくと見るや東郷司令官は、三……戰鬪開始を示し、全艦隊は次第に敵の先頭に迫つて行く。

東郷司令官はあまたの幕僚を從へ、旗艦三笠の艦橋に立つて、默默と雙眼鏡をのぞいてゐる。時は移つて午後一時五十分、いよいよ戰鬪開始の命が下つた。次いで五十五分、三笠の檣頭高く信號旗がするすると揚げられた『皇國の興廢 此の一戰にあり、各員一層奮勵努力せよ。』殷として、秋霜の如き信號である。仰ぎ見た全艦隊幾萬の將士の意氣は天をつき悲壯勇烈の氣、早くも敵を壓するものがあつた。

1、[illegible]したのは[illegible]か。
2、三笠艦の檣頭にはどんな信號旗が揚げられたか。
3、信號旗を見た全艦隊幾萬の將士の意氣はどのやうであつたか。

國語科 (讀國) 第一回 其二

二、次ノ語句ノ意味ヲ書キナサイ

大陸的光景 (
御休憩所 (
雜木林 (
國境警備 (
[illegible] (

三、次ノ文ヲヤサシイ文ニ書キ改メナサイ。

論語は曾參と有若との門人等が孔子及び其の高弟の言行を集錄したるものにして、最もよく此の大聖の面目をうかゞふを得べし。今此の書によりて其の一端を述べん。

四、次ノ漢字ノ右ワキニ讀ミ假名ヲツケナサイ。

神明造 健氣 日比谷 盤石 豐想 舞臺 明星 何卒 對馬 [illegible] 巡遊

五、次ノ文ノ片假名ノ所ニ漢字ヲ書キ入レナサイ。

二度シ( )をアツ( )めて[illegible]度サン( )じたる艦隊は、ツヒ( )にフル( )つて第三回のボシ( )に、チヤクシユ( )せり。艦隊のシツメイ( )なる奮鬪心と、あくまでイチネン( )をひるがへさざる熱心とは、漸く人々をカンドウ( )せしめにや。喜んでキフ( )するもの イダツイ( )に多く、此の度はセイハン( )、インサツ( )の業チヤチヤク( )として進みたり。

國語科 (讀國) 第一回 其一

一、左ノ文ヲ讀ンデ次ノ問ニ答ヘナサイ。

昔は商人の利益を營むのが商業であると思はれてゐた。それ故大多數の商人は、自己の利益を除いては、殆ど何物をも眼中に置かず [illegible]も努力も要するに皆自己の爲であつた。彼等が町人といつて賤しめられたのも其の爲であらう。これはひつきやう文明の程度が低いために、共同生活の意義が明らかでなく、隨つて商業の本質が理解されず商人の人格が重んぜられなかつたからである。文明の進んだ今日尙此のやうな、考を持つのは大きな誤といはねばならぬ。

(1) 昔の商人は商業といふことについてどんな考を持つてゐたか。
(2) 昔の商人が賤しめられたのはひつきやうどんなわけか。
(3) 『彼等が』とは何をさしてゐるか。

二、次ノ語句ノ意味ヲ書キナサイ

慈悲圓滿 (
不滅の光 (
共同生活 (
正義の念 (
尙武者 (

(계속)

クラブ齒磨

구라부

齒牙를히고튼튼하게·虫齒를막고·完全한淸淨美化作用

살길차저 滿洲가는 慶南道五百移民
四月初旬부터三回에나노아 營口鐵嶺等地로向發

【釜山】경상남도에서는 도내에 잇는농민중 만주(滿洲)의영구(營口)철령(鐵嶺)양농촌에 농업이민을 보내양으로 약이개월전부터 각군으로하야 전형을하던바 지난 삼십일에 일백호오백오십사명을 오는사월오일부터 팔일까지 삼회에 노나서 수송하기로결정하얏다는데 그이민농민의 군별내역은 다음과갓다한다

營口農村輸送分
東萊一五戶一四六人 梁山六戶二六人 蔚山一四戶七九人 昌原五戶二四人 合計五〇戶二七五人

鐵嶺農村輸送分
密陽一〇戶六六人 金海七戶四一人 宜寧一〇戶五六人 固城六戶二五人 泗川七戶四二人 陝川一〇戶四五人 合計五〇戶二七九人

挿橋公普校의 擴充實現
有志의活動奏効

【挿橋】충남예산군삽교면 삽교공립보통학교(挿橋公立普通學校)는 소화사년사월에 설치되어래 구년간에 이르러 면민의 갈망은물론 유지(有志)들의 맹사적활동이 계속되어 정력을 발휘한 결과 지난이십오일에 도당국으로 부터 학년연장학급증설에대한 정식인가가되여 다년간 현안중에잇든 삽교초등교육문제는 이로써 해결된 모양이라는데 이소식을들은 면민들은 깃뻐에 넘치어 교실증축비로 자진한 긔부금이 착착답지중이라는데 긔부자의 금액은 다음과 갓다한다

▲朴教圭千圓▲金鍾燮三百圓▲李寶在 金泉漢 崔圭鳳 林炳寅 葛山里洞民一同 以上各百圓式▲崔昌業 曹慶國各六十圓式▲李炳圭 印泰淳 洪正求 張昌吉 張世煥 宋鐘冕 安鵬觀 鄭雲荷各五十圓式▲林吉相 李根百 金仁培 高興謙各二十圓式

에서도 여러가지로 고려중이라 고한다

支局創立二週年 記念다올을贈呈

【惠山】본사혜산지국에서는래오 [illegible]는바 [illegible] 반 대중에게적지안흔 사업을하여온것은 세인이다 가려아는바인데 평일에 주정간접으로 만흔 애호를어든 일반독자에게적으나마 긔념다올을 일게식증정하려라는데 지국관계자는 그준비에 분망하고잇다 한다

旱災! 至毒한旱災
가을부터겨울 겨울에서 봄까지
벌서부터 雜穀播種奬勵 關西地方人心極恟恟

【平壤】장차파종기를압둔 관서지방일대의 농가에서는 작년부터 계속하는 지독한한재로 현재에는 우물들이 말라버려 할수업시 징을뒤로두고 울로수잇는 지방에 이전전하는 상태이어서 도대체 파종할생각도 가지지못하는 중에오 각 수리조합 저수지는 저수 량이 평년의 삼분의일로 격감하여 벼모를 부을물도 업는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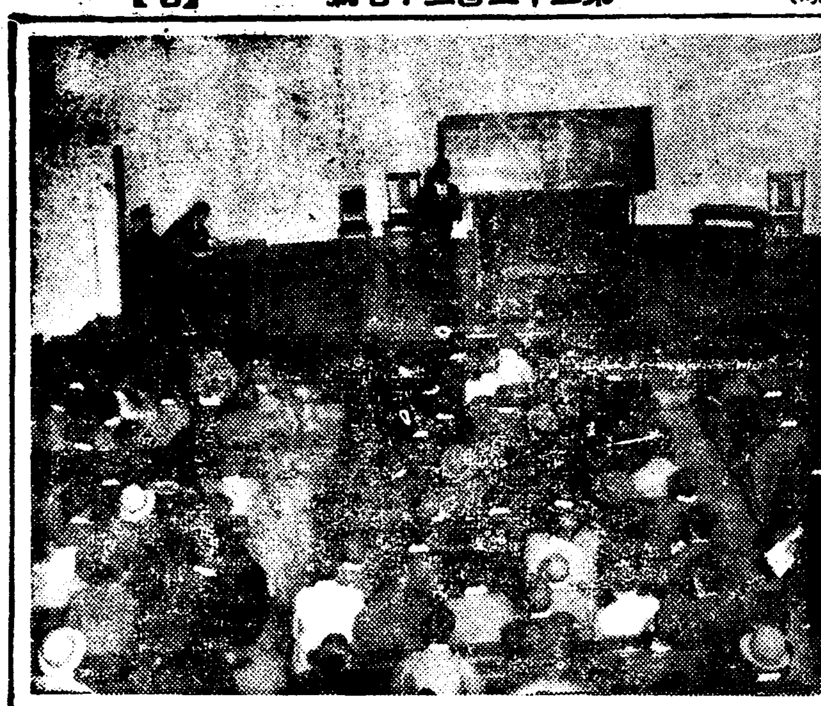
이때문에 멧수리조합에서는논에다가 잡곡(雜穀)을 심으라고 발서부터 권장하고잇는 비참한 장면을 보히고잇는터이다 춘궁긔를 당면하여 식량문제가 큰 산간군부에서는 지금에 또다시 을로수난에 봉착하여 이중삼중의 끈경에 빠지게되여 살수업다는 소리는 전북에 차잇는터이다 도시 평양시내에는 간조한 그리구 홍진만장한 렬풍만이계속하여 눈을뜨고 보행할수업는 숨막히는 천후가 계속되고잇다

이때문에 각종전염병호흡기병이 무서운 형세로 증가하고잇는상태이다

이리하여 련겨허 계속하고잇는 괴후로 상공계 인명 초목 등에까지 무서운 결과를가저오게하고잇다

鴻山에도旱魃繼續 貯水池擧皆涸渴
春耕期압두고人心不安

【鴻山】충남홍산 수리조합의옥산저수지(玉山貯水池)는 수천여정보의 몽리구역을 가젓는바작년중 배수이후로 겨울의 한발이 너무도 심하야 저수지는태반고갈되고 모심기전으로 큰비가 만약오지안하면 금번농작은 도저히 바랄수업다 하야 일반인심이 매우소란하다는데 당조합



市場使用問題로 群山府會空前騷亂
一可決案을다시取消하는等 府會史上처음볼失態

【群山】군산부회 제륙일 지난이십팔일은 최종일이엇섯스니만큼 론전은 바야흐로방감(方酣)하얏다

즉 역전(驛前)조선인시장사용료(市場使用料)문제에잇서서 전의용(全義鎔)의원을비롯하야 조선인전의원으로부터 사용료인하감하에대하야 맹렬한론란이잇슨다음 전의용의원안수정에대한 동의(動議)를하자 적송(赤松)서홍선(徐鴻善)량 의원의 동의에대한 찬성으로 동의가 성립되야 의장으로부터 찬부(贊否)에대한 채결을 할것을 선언하자일본내지인 의원들의 반대론이사방에서 일어나 회의장은 공전의대소란을 이르키자 회의장을 수습키위하야 잠시휴회하얏다 다시속회를한후 부 리사자로부터 대세로보아 사용료의 일할은감하할수는 업스나 지금까지밧던 이전이하의 사용료만을 면제하겟다는 언명으로서 동문제는락착을 지엇다。그리고도 군산식료품시장사용료(群山食料品市場使用料)문제에대하야김백룡(金白龍)의원으로부터 수수료의 백분지십을 십오로 인상을 하자는 동의를하자 곳서홍선(徐鴻善)전의용(全義鎔)량의원의 찬성으로 찬부에대한 채결을 무긔명으로 투표를한결과 십이대 십으로통과되자 의장은 자긔의 일표로 원안가결을 선언한바 김백룡의원은 곳뒤를 이어 부조례(府條例)제삼십사조인 의장급의원은 자긔 또는 부모 조부모 처자 손자 형제 자매의 일신상에관한사건에 대하야서는 그의사(議事)에 참여함을 부득함이라는 례귀가잇슴에도 불구하고 당해의사에 직접관계를가진 아버지가 투표를하얏스니 이는 무효가아니냐고 추궁을하자 의장은 례귀에대한 인식(認識)부족이엇섯다하고 일단 의장의일표로서 채결을하얏던 의안을취소(取消)를한바 그야말로 의장의 례귀에대한 인식부족으로 취소의 추태(醜態)까지 연출 하야 동문제를 다시 투표한결과 십사대구로 동의가 채결이되다음 서홍선(徐鴻善)의원으로부터금후시정(施政)에대한 희망을 진술한후 오후팔시에 말성만흔이부회종막을지엇다

空前의大盛況이룬 經濟問題大講演
本社平壤支局主催

【平壤】본사평양지국주최시사경제문제강연회는 예정과가티 이십칠일오후칠시부터 백선행긔념관(白善行紀念館)에서 성대히 개최되엿다

연사 본사주필 서춘(徐椿)씨의 두시간여시간 동안이나 되는 장시간의 도도한열변은 처여 청중의 흉금을 짜러지게햇고 상공업에 종사하는 평양인사들을 자극시켜 일층의 성공을 긔약하게한후 동구시경에 산회햇다

◇寫眞……講演會場

興南支局後援 申不出漫談會
來四月九日에

【興南】만담계로 모를 사람이 업는 신불출(申不出)씨의 금번 만담순행을 긔회로 당지동일당(東一堂)악긔점주최 본보지국후원으로 오는사월구일 구흥리회락관에서 만담대회를 개최하리라는바 입장료오십전을 본보독자에한하야만 사십전식으로 하게되엿스며 벌서부터 인끼가비등하여 만원을예상케된다고한다

義城에火災

【義城】지난이십팔일 오후세시반에 경북의성군 의성면후죽동(義城郡義城面後竹洞) 백봉국(白鳳國)의 집에서 불이나서 동가를전소식키

江西의숨은恩人 崔仲樂氏記念碑
除幕式盛大히擧行

【江西】륙십년을 하로가티 지방을위하야 농촌자제들을 무보수로 교육을 시켜 문맹퇴치에 노력하는일방 환자들의 병까지 무료로 치료하야온 숨은 은인이잇다——그는 강서군반석면반룡리(江西郡班石面班龍里)에 사는 최중락(崔仲樂)(七?)씨로서씨는성품이 온순하며 구한학자로서 한방의학에도 능통하야 원근의 자제와 환자들을 친자식과가티 사랑하여왓다는데 일반주민들은 이숨은 은인의 은혜를 만분의일이라도 갑고저 리치근(李致根)씨외 칠팔인의 발긔로 찬조금을 모집하야 씨를 영원히 표창하고저 불망긔념비(不忘記念碑)를 수립하기로되여 륙백여명의 지방인사 참집하에 제막식을 성대히 엄수하엿다고한다

◇寫眞…崔仲樂氏

新義州無電開局

【新義州】신의주무선전신국은 소화구년팔월십일에 긔공하야 작년십이월이십팔일에 준공되얏는데그간내부설비를 완료하고 지난이십구일개국식을 거행하얏다한다

慶北線列車에 女子一名轢死
住所氏名皆未詳

【慶北】지난이십륙일 오전[illegible]시경에 경북선(慶北線)김천발 일렬차가 류천(柳川)부근을 통과할 지음에이십오세가량되여 보이는 여자한명이 치엿는데 차장(車掌)은이것을알지못하고 통과하엿든바 경북안동(慶北安東)발 제이렬차가 전긔 류천부근을 통과하는중 발견하고 긔차려 부근 사람들이 알게되엿스나 죽은여자의주소성명은 알도리가업다고한다

[illegible] 동으로 속히 진화되여 큰피해난 업섯다는데 출화원인을 조사하야본즉 그는 부근아이들이 [illegible] 화재를 [illegible] 에서는 특히 아이들의 불작란을 엄중감시하기를 바란다고한다

慘! 살면얼마살며 먹으면얼마를먹나
七十八歲된老婆 生活難으로自殺
═農村疲弊의一面相═

【咸安】남은생명이멀지안흔 늙은로파가 생활난으로 웅덩이(小池)에 빠저죽은 참극이 잇다 드른바에의하면 경남함안군군북면소포리(小浦里)에사는 리십팔의 어머니조씨(趙氏)(七八)는 쪼들리는생활에 견듸지못하야 지난이십륙일오전다섯시 세상사람이모르게 동리에잇는웅덩이에 빠저 얼마남지안흔 그의생을 버리고 머나먼황천객이되엿다한다

[illegible]엄아력박사([illegible]力博士)의추도회를 지난이십륙일 오후구시부터 회녕예수교장노회례배당에서 엄숙히거행하엿다는데 고엄아력씨는 조선에와서선교사로삼십사년이란 긴세월을 조선민족을위하야 희생한 그의공덕과그의신앙은 참으로 잇지못할표준임으로 금번에 이와가티 추도회를 거행하엿다고한다

地方人事

▲申龍湜氏(江景魚業市場陳情委員)二十八日午後 再次 陳情次大田向發
▲李重雨氏(同) 上同
▲阿部達氏(鐵原郡守)東海岸方面巡廻次로二十八日出發三十日歸任
▲宋時顯氏(警部補)鐵原警察署新任人事次本社鐵原支局來訪

異次頓의死 【126】
李光洙 作 金奎澤 畫

선마로는 임금의 말슴을 들으매 쇠마치로 머리를 마즌가십혀 정신이 어쩔하엿고 공목과 알공은 덜덜 떨고잇섯다。

얼마아니하야서 어명 밧고 나갓던 신하가 돌아와서,

『상감마마。벌서 한나마이상 모도 정정 뜰에 모엿소』

하고 아로인다。

『오。선마로。네가 미리 불러도 편전으로 들라 하여라。밤ㅅ바람이 차지아니하냐。선마로야。너도 편전에 나가 잇거라。이몸이 옷을입고 나갈터이니。신라ㅅ나라는 예로부터、시조대로부터 나라에 큰 일이 잇스면 여섯 마을 벼슬아치를 불러 의논하는법이니라。』

선마로와 공목과 알공이 머리를 조아려 임금께 절하고 일어나 나온다。

세 사람이 나간 뒤에 임금은 혼자말로、

『오 어디 저 놈들이 다들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자。』

하시고는 다시

『이 보아라』

하야 시종을 부르시와、

『네 이차돈대사 곳 이리 들라하여라』

하시고 마음을 진정치못하는드시 일어나시와 방안으로 오락가락하신다。군사들의 아우성 소리 여전히 들린다。

『홍。선마로놈이 미리 사람들을 불러노핫다。미리 서로 짯울 모양이지』

하고 임금은 자리에 안즈시며 혼자ㅅ말을 하신다。

이 때에 왕후와 평양공주가 들어온다。왕후의눈은 근심으로 커지고 평양공주의 얼굴에는눈물이 빗낫다。

평양공주는 평풍에 기대어안즈신 수척하시고 피시기 업스신 임금의 모양을 잠깐 보다가

『아바마마』

하고 울며 쓰러진다。

『무슨 일이라 하오? 무슨 일이 군사들이 저러듯 야료를 한다 하오?』

하고 왕후가 근심스러운듯 임금께 뭇는다。

『이차돈을 내어달라오』

하고 임금은 실색하신듯이 대답하신다。

『이차돈을?』

하고 왕후가 놀라면서 물으신다。

『에、이차돈을? 저 군사들이 이차돈을 내어달라고?』

하고 평양공주가 숨이 막힌듯이 놀란다。

『그러타』

하고 임금이 고개를 끄덕끄덕하신다。

『이차돈을 무슨 죄로?』

하고 왕후가 또 물으신다。

상감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시며,

『이차돈이 착한 죄로。옳은 죄로。이몸의 사랑을밧는 죄로。도적놈들이 해ㅅ빗을 미워하는 모양으로。이차돈 하나만 죽이면 이세상에는 저의들의 죄악에 찬 더러운 몸을 비칠일 빗이 업서질뜻함으로。이것도 모도다 선마로의 작란。이 나라 권세를 다 제 손에 맛겨서저하고싶은대로 못하는 일이 업건마는 그래도 아직 하나이 마음에 차지아니하야、이 괴롭고시든한 임금의 자리가 마음에 차저아니하야 그것을 어드라고하는저홍개。이몸이그것을 모를도 아니언마는 그래도 저와 이몸과는 단두 동기。참아 저를 어찌할수업서서 오늘이나 래일이나 제가 개과천선하기만 기다리고 왓건마는。게다가 배 다른 아우。아바마마께오서 그리도 사랑시던선마로。이것저것두루 생각하고는 참아 저를어찌하지못하여서 보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기다리던 선마로。그래도 이몸의 덕이 부족하여서 바른길에 들어서게를 못하고 이제 이꼴。이제는 제가 죽거나 이몸이 죽거나 결판이 나지아니하면 아니 될 때가 와다。아야』

하고 괴로워서 몸을 이리저리 움지기신다。

『아바마마』

하고 평양공주가 임금의 압헤 가까히 나아가 풍마즌드시 떨리는 두 손을 마조 꼭 쥐이고、

『아바마마 이차돈을 어찌하시라오?』

하고 뭇는다。

時代는變進하엿다
[illegible]한長廣告에 [illegible]되여서 責任업는 藥을사는 時代는지나갓다

最新醫學原理에符合되고 高貴藥材로研究調製한
世界的强壯劑 네오톤토닉
適應症 [illegible]

米國아루스三製藥會社 元造製
元賣捌總代理店 輸入發賣元
柳韓洋行 京城·上海·大連

네오톤토닉榮養作用圖의內容과價値
【無代進呈】
上記圖解는네오톤토닉이人體에與하는生理的作用을學理的으로圖解한것인데[illegible]十餘色으로區別하야精巧히印刷된高級印刷物로서此를家庭에두고兒童敎育上에資하고一般公衆의共覽에便한곳에掛置하야醫學에對한常識及一般民衆衛生向上에莫大한參考及敎育材料가되오니願하시는분이有하시면請求次第로無代進呈함

● 頭腦를二倍나쓰는 はれやか(하레야가)
질거운飯酒를 淋疾로못마시다가…… ネオヂリン(네오지린) 먹으면도마시고십흡니다
各有名藥店에잇슴
京城本町四丁目 株式會社 木村藥房

두통과치통에 지노ー
赤包의두통藥

資生堂洗濯石鹸
衣服바탕을안버리고잘빨닌다!
本品의特長
一、最高의品質 最低의價格
一、거품이 잘나오고
一、洗濯한뒤에 不快한내를안남기고 쓰기조타
一、淨白力强하고 經濟的이다
東京銀座 資生堂

中央館 永樂町 電本三三五
三月三十日より[illegible]
横國トビス・サンヤ[illegible]
「婦人公論」所載
"維納舞踏曲"の主人公
我が明眸ソプラノ歌手
田中路子主演
"未完成交響樂"の
ハンス・ヤーライ共演
戀は終りぬ
ウイーンの樂壇に咲いた美しい日本娘と若い指揮者の戀、中年作曲家の死の求愛、黄昏の街ウイーンはしっくりと夜の霧に濡れてゐの
新興空前の大力作、オールサウンド
高田稔主演 新興[illegible]
曉の麗人
曉の麗人!とは誰が選びし
儚しくも强く悲はしき美名、されど此の美しき言葉の影に涙する幾多の女性、あゝ!

若草映画劇場 電本五二五四
四月一日を期して更生第一歩の若草劇場の内部刷新の爲勝乍ら三十日、三十一日の二日間臨時休館させて戴きます
四月一日ヨリ封切
一、パラマウント特作日本版
ジェームス・フラッド監督
上海
粋人……シャルル・ボワイエ 主演
名花……ロレッタ・ヤング
二、ピーシーエル超大作全[illegible]
木村莊十二……監督
松旭齋天勝……主演
魔術の女王
竹久千惠子、丸山定夫、[illegible]
赤木蘭子、御橋公、共演
三、パラマウント超大作日本版
ノーマン、タウログ監督
一九三六年の大放送
ジャック・オーキー・リダ・ロベルティ・ビング・クロスビー・ジョージ・バーンズ・他米國ラヂオ藝術名家總出演、[illegible]を呼ぶ明朗の新喜劇[illegible]
一大人五〇學生三〇晝夜三回[illegible]
映畫入替せず

三月三十一日밤부터大公開
料金 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公開
春季特撰名畫謝恩特別大公開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空中人情活劇 盲目飛行士 全八卷
監督…젬스포랏드氏
主演〔마나로이孃 / 케리트란드氏〕
助演…로스도간스氏
盲目飛行士……이한篇의名畫은널이世上이다아는名畫의하나임을말할니다곡보아두시라盲目飛行士…
를파라마운트社超特作發聲日本版
西部活劇 西部의掟 全七卷
監督…아사ー작코부승氏
主演〔작키ー쿠강君 / 이란블푸스콧도氏 / 이봐린푸랜드孃〕
大都映畫社超特作
琴絲路プロタクション合同作品
明治時代劇 明治五人娘
監督…吉村操氏
競演…琴絲路 北見禮子 千代田綾子 川島千惠子 平塚泰子 水島道太郎 島田文郎
麻浦桃花洞 電龍二三三番
桃花劇場

增稅로 財政再建
赤字를 克服하라
(下) 小川鄕太郞

高橋藏相의 積極政策과 同時에 增稅가 當然의 問題로 되는것은 當然한 일로 되어 그 時期가 너무 늦엇다고 할수 잇다 高橋財政의 赤字公債政策이 明業에 直面하고 잇섯다는것은 前에도 말한바와가트며 또 現代乃至將來의 財政的負擔을 現代의國民이 負擔치안코 그全部를 後代의 國民에게 負擔식히는것은 업는까닭이다 그러면 廣田內閣이 行할增稅는 大體 엇던것이냐 하는問題인데 나는 아직도 그增稅案의內容을 詳知할時期가 아니라고 밋는다

×

增稅 未曾有한事件의 影響이어 廣田內閣이 겨우 成立되엇을뿐이며 人心은 아직도 매우不安定한 狀態에 잇다 아침에 甲論을 듯고 낫나가 저녁에 다시 乙說을 듯고 [illegible]을 내이는狀態이다 이런때에 增稅의內容等을 公公然히 論한다는것은 삼가지안흐면 안된다 더구나 民政黨으로서의態度도 詳細한點까지는 아직도 決定되지안코잇슴으로 政黨人으로서는 輕率히 意見을 말하고 십지안타 勿論 나個人으로서는 일즉 增稅[illegible]等으로 增稅에關한私案을 가지고잇다 그러나 한줄로 投機市場의 材料를 提供하야 이것을 亂擾하고는 십지안타 그러나 增稅를 目的으로하는 稅制改革에는 반듯이 그目標가 잇지안흐면 안된다 적어도 稅制의 整理를 行한다고하면 稅負擔을 公平한것으로 改定치안흐면 안된다 增稅는다만 稅收入의 多寡만을 標準하야서는 안된다

×

稅收入과 同時에 負擔의 均衡도 考慮치 안흐면 안된다 稅制中에는 財政을 論하는사람도 [illegible] 어떠한것이든지 그 現在가 한쪽에 偏在되고잇는感이 잇다 社會大衆의 [illegible]은 外國의 財政理論을 直輸入하야 大衆課稅는 不可하다고 排斥하다 一面 產業의 [illegible]은 增稅는 產業을 [illegible]하는것이라고 反對한다 그러나 이들의 立論은 모다獨斷의 一面만을 보고하는 말이다 大衆課稅는 不可라고 말하지만 元來 租稅라는것은 全國民에게 負擔하기하지안흐면 안된다 租稅의 意義는 國民全體가 그分에 相應하야 負擔치안흐면안된다 [illegible] 消費者의負擔이라고 하면 이것을 大衆課稅라고 排斥하는 論者가 만흔 大衆의生活費에 直接影響을 미치는것이나 酒、砂糖、煙草와가튼것은 [illegible] 此等에 對한課稅는 그影響이 自然히 다르다 [illegible] 財政의 [illegible]을 [illegible] 消費者라고 하야도 一面의 [illegible]을 節約하고 한편의 [illegible]을 減하야 國家에 多少의貢獻을 하지안흐면 안된다

×

그런데 消費稅는 곳 大衆課稅라고 排擊하면서 大衆으로써 國家에 貢獻을 할수잇게는가 現在 民政黨內閣時代 濱口藏相이 行하엿든 會社收益의課稅가 너무 [illegible]하다고 보는사람도 잇지안흔가 어떠한 [illegible]은 實業家에도 잇는것으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增稅는 產業의 [illegible]을 버린다는것이라고 하나 現在의 產業은 이미 [illegible]로부터 가지가 생기고 잇서 귀가 달려잇지 안흔가 六十七議會에서 臨時所得稅가 提案되엇슬때 財界의 [illegible] 一面으로는 消費稅를 增稅하야 國民全體의 負擔을 求하라고함에는 直接稅도 整理하야 有產者의負擔도 均衡을 保持케하여야만된다 이境遇에는 勿論 中央 地方의 稅制의整理이라는것이 問題가 된다 [illegible] 直接稅制에는 同時에 地方稅附加稅가 整理되고잇는點으로 消費稅와는 매우 다르다 [illegible] 負擔에對한것은 [illegible] 負擔의均衡을 保持치안코는 [illegible] 할수업다

×

此等의 財政制度는 實業의 整理도 相伴치안흐면 [illegible] 財政의 基礎를 堅固케할수가 업음은 勿論이다 나는 [illegible] 日本은 列國과比較하야 아직도매우 [illegible] 租稅負擔에 잇서서는 [illegible] 資本家側으로서도 업다 그 [illegible] 可決 [illegible] 보아 增稅는 [illegible] 이다。(完)

藥酒와 濁酒의 販賣統制를 計畫
◇…京城稅務署管內에잇서서
今夏會社組織完成

京城稅務署管內의 藥酒 濁酒業者로 組織된 朝鮮酒組合에서는 藥酒 濁酒의 販賣統制를 하고저 販賣會社組織을 計劃中에 잇다고한다 그內容을 들으면 現在朝鮮酒醸造業者들은 外上條件의 發錯、業者間의 競爭으로 因한 品質低下로 濁酒는 燒酒에、藥酒는 日本淸酒에 販路를 빼앗게 되는等 여러가지로 困境에 잇슴으로 打開하자는主旨로 予先 醸造의 同一한方針指示로 品質을 向上케하고 또 一方으로는 四十萬圓의 販賣會社를 組織하야 販賣는 全然 販賣會社의손을 經由케하자는것이다 卽

一、會社組織은 現在의 醸造業者 京城府內十七高陽郡二十二永登浦四合計五十三名을主體로하고

一、年產藥濁酒八萬五千石(石當十八圓)藥酒三萬六千石(石當四十五圓)의 販賣는 會社가義務를 가지고 一手收合하야配給所로하여금 販賣케하야從來와가튼 生產者의販賣에依한手續과 競爭을避케하고 會社에는 그手數料를納付케하고

一、納品에對한 代金은 五日以內로支拂하며또資金融通도하고

一、原料共同購入等도 하자는것이다 그런데 이러케된다는販賣會社商品은 品質의 均等이라것도 問題가 될터인데 從來의 家號만은 存續식혀 品質에依한 品等도 作定케하리라고한다 그러고 會社는今年열둘의 限數까지에 組織을 完成식히려는 것이라고한다

銀行營業時間
四月一日부터午前九時

京城組合銀行에서는 例年과가티 四月一日로부터 營業開始와土曜를 빼여노코 閉行時間은 各一時間 닥어서 閉行時間은 午前九時로 土曜를 빼이고는 午後三時에 閉行키로 되엿다고

깨쏘린値上
解決할方針

【東京電話電通】日石을 비롯한 깨소린六社에서는 二十八日 石油聯合株式會社가創立되엇슴으로 既定方針에 基하야 깨쏘린値上問題의解決에 進行키로되엇다 卽 同會社에서는 늣서도 來月初旬頃에는 値上率等을 正式으로決定할모양이며 이번의 깨쏘린値上은 米國價格의騰貴分을中心으로 [illegible] 稅引上案의 實施等도 考慮하야 値上率을 決定할方針이다 그結果 石油各社側에서는 現在까른에四十錢 實價五十錢乃至四十二錢가량의 値上을要望할 意向인듯한바 監督官廳인 商工省當局에서도 米國의 原油界事情에 對하야 그뒤調査한結果 그永續性이大體로 認識되고 다시 原油船賃의 値上 關稅引上案 實施事情等을 보아 이번의 깨쓰린値上도 不得已한 것이라고한다 石油各社側에서値上의內申이 提出될 境遇는 値上率에 多少의異議가 잇다고하야結局 若干의 値上은 容認할 方針이라고한다

移出白米振興
期成會를結成

仁川穀物協會主唱의 精白米業振興에 對하야는 廿八日의 穀物聯合會幹事會에 仁川側에서 提案하야 數時間 이것을審議하얏는데 結局 移出白米振興期成會의 機關을 穀物聯合會의 斡旋으로 創立키로되야 創立委員長에 加藤平太郞氏 副委員長으로 笠原德藏氏 其他白米에 關係가 잇는 穀聯幹事二十名委員으로 遲不遠第一回의 會合을 하야 白米業者의 振興方法을研究協議키로되엿다

白米業打開策
協議는別無所得

仁川精米業組合의主唱인 精白米業의 消振打開策을 廿八、九의 兩日 穀聯幹事會에서도 議題에 올리서 論議되야 穀聯內에 白米工業部門의 設置說도 擡頭하엿스나 何等成案을 보지못하고 다시 仁川側에서 其腹案을 作成하야 次期幹事會에 附議키로 되엿다

朝鮮米輸送戰線
混亂難免의形勢
東洋汽船新勢力으로

東洋汽船은 今回從來의 貸船主義에서 自營方針으로 轉換하고 朝鮮線에 定期航路를 開設하야 昭和肥料의 化學肥料其他雜貨及朝鮮米의 積取에 參入할方針을 決定하얏는데 從來遠海航路에만 흔 經驗을 가진同社가 近海航路에 새로이 進出키에 至한것은 各方面으로부터 注目되는同時에 鮮航同盟會解體以後의 朝鮮米輸送이 自由積取時代에 入한 今日새로이 有力定期船의 介入은 關係方面의 神經을 날카로웁게하고잇다 期同社는 昭和肥料의 化學肥料輸送을 特約하고 한便으로 朝鮮米輸送에 當코저하는것인데 朝鮮米輸送에參入할수잇슬지는 疑問이오 二水會加盟의 船會社側은 同社의參入에 比較的冷靜한 態度[illegible]고잇는데 東洋汽船의 進出은 自由積取와 低廉運賃에 [illegible] 共同戰線이 이때문에 意外의 混亂을招來할지도 모르다고 憂慮하고잇다한다 何如間 朝鮮米夏期 運賃의十五圓引上이 船會社로부터 提議되어 多事한 今日東洋汽船의 動向如何는 重大한關心을가지고 보고잇다

經濟界消息

○鎭南浦港航行自由=鎭南浦港의 流氷은 最近의 暖氣로 顯著히 緩和되야 朝郵漢城丸은 二十八日 無難히入港하야 船舶의出入은 危險이업는狀態로 되엇다 그러나新義州港은 아즉流氷이만허 來月十日頃이 아니면 船舶의出入은 自由로웁수 업다고

米運賃協定을復活
朝鮮穀物聯合會를契約主體로
夏期運賃부터實施

朝鮮穀物協會聯合會에서는 山澤農產課長、梯井商工課長等 臨席알에 二十八日幹事會 二十九日代表幹事會를 열고 朝鮮米運賃에關하야 協議한結果 總督府의 意向도잇서 現下各港 自由積載時代의 朝鮮米運賃의 混亂狀態를此際 調整하고 昨年七月決裂되鮮航同盟會對穀聯의 運賃契約을再次軌道에올리어 穀物聯合會를 契約主體로한 運賃契約을새로이 船會社와 締結키로 大體意見이 一致되엇다。이때문에現在契約自主權을 掌握하고잇는日本內地荷主側과도 折衝交涉을開始하는 一方船會社側과도 積極的으로折衝을 하기로되엇는데大體五月로부터의 夏期運賃부터이것을 實現케할意向으로 聯合會에서는 이것의 新契約具體的方法에 對하야 各擔當에서 協議하고 來月二十日再次 幹事會를 開하야 最後的決定을 하기로되엇다 何如間 最近船會社가 各協會에서 十五圓引上을 通告하고잇는 此際에 朝鮮內荷主가如斯한 協調的態度에 再轉向한것은 매우注目되다한다

法爲替低落繼續
巴里、紐育、倫敦市場에서
佛銀行大幅利上

【巴里二十八日發電通】佛蘭銀行理事會는 二十八日緊急[illegible]을 協議한結果 有價證券市場에 나타난 外國物買에對하야 佛國資本의 逃避를防過하고 또 爲替의 顯著한軟弱을 阻止키爲하야 予先銀行이 利上을 斷行하는同時에 英米側에 協力을 要請하야 爲替低落의 防止對策을 開始키로되엿다 이와가티 佛蘭銀行은 지난 二月四日 利下以來 三分五厘의 公定割引步合을 一擧에一分半을 올리어 五分으로[illegible]하고 또 [illegible]保貸付도 一分을 올리여 大分[illegible]分에서 三分五厘로 내렷스 同銀行은 지난 二月六日附[illegible] 爲替市場에 對[illegible]키로되엇다 이金融市場에 [illegible] 準據하야 利上을하엿다 이것을 不拘하고 이번의 法貨는 巴里紐育倫敦을 通하야 依然히 旺盛하고 英蘭銀行爲替 平衡資金의 活潑한 運用振에 法貨公債는 下勢가 繼續되엇다

【巴里二十八日發同盟】二三日以來 法貨에 對한前途念慮가 漸次增加하야 米佛爲替는 中國으로부터의 對米金現送點에 接近하야 同國으로부터의 金流出이 增加하리라고 觀測케되엇는데 佛蘭銀行은 二十八日 [illegible] 銀行의 公定割引步合을 [illegible] 分五厘에서 一擧一分五厘를 올리여 五分으로하고 이金[illegible] 市時에 對[illegible]키로되엇다

法賣物殺到

【倫敦二十八日發電通】二十八日의 倫敦爲替市場은法貨의 賣物이 殺到하야 土曜半日의 營業時間中에 一億五千萬法이라는 巨額의取引이잇섯는데 英國銀行方面에서 政策的의 買向이잇섯다 爲替는 依然 軟化하야 前日의 終値보다 〇法〇五一高의 七五法〇四六에 達하엿다 先物은 爲替關係上一月先物에 對하야는 二法의 割引、三月先物에 對하야는 西法[illegible]의 割引을 唱[illegible]하야 다시 割引步合의大幅値上을 하게되것이다 (爲替은 佛蘭西銀行 發行十法兌換券)

海運業의
國家經營
獨逸政府가計畫

【巴里二十八日發同盟】獨逸政府는 自國海運의 徹底的統制管理를 하기로되야 六月一日에 하바크로이드同盟에屬한 諸主要會社가 總會의 開催를 機會로 獨逸海運業을 政府의 支配下에 두기로되엿다 하바크로이드同盟에屬한 諸會社는 이번의 總會에서 資本金을 減資하거나 或은 政府가 今後發行될 株式의 全部를買入하야 海運業을 一切國家經營으로 옴기게 하라는것

商況 【三十日】

株式
前高後低
伸惱

前場昂高 休日前은 鐘新買、日產實의區區商狀이더니今前場은 商品高、低金利期待等으로 東新의 好勢를버릇하야 諸株一齊强調이엇스니 卽再昨引에比하야 東新一圓九十錢高인 百二十七圓丁 日產二十錢高인 七十八圓十錢 鐘新九十錢高인 百四十六圓六十錢 大新十錢高인七十四圓六十錢 朝新四十錢高인 二十六圓九十錢에 各大引되고 日魯六十三圓五十錢 拓新十七圓四、五十錢이엇다

△東新[illegible]
△日產[illegible]

後場反落 後場은 高價買不[illegible]

日產도反戾
‖休日前土曜에 日產은 東京六十七圓丁大新六十七圓十錢 當地六十七圓十錢에 崩落되엇섯는데 그原因은 日產實가 散見되고 日魯買日產實가 [illegible] 그軟調가久原의 身邊不安人氣로 [illegible] 는一方拂込徵收 減配을 云爲한까닭이엇다는데 今前場은 東京六十八圓七十錢 當地六十八圓五十錢으로 反戾訂止高를 示하얏다

實物前場取引
▲日滿아루미[illegible] ▲石川島新[illegible] ▲東滿[illegible] ▲鹽水港新[illegible] ▲帝麻新[illegible] ▲朝鮮石油[illegible] ▲東洋拓殖[illegible] ▲北鮮製紙[illegible] ▲電化新[illegible]

商品高의後援
一氣上進疑問

休日을지난 今前場은 諸株一齊强調이엇스니 反落이엇스니 卽前引에比하야 東新一圓六十錢低인 百二十五圓四十錢、日產五十錢低인 六十七圓六十錢에 各六引이고 鐘新도 百四十六圓丁에引하얏다

一、生絲八百圓關門突破를 비롯하야 綿絲、棉花、人絹等重要商品一齊高의 好感이잇는것

一、休日前 當限平穩納會의好感과 中限即四月限도 融蓄로崩無恙賣이것

一、四月以後는 季節的으로라도 金融이 引緩뿐만아니라 今後低金利 急速進行期待이것

一、統制經濟도 法律을 制定하여야겟스니 緊急한것을 特轉에提出할 程度의 것이겟고 一般으로 愼重히 立案하리라고하는 解해지것 等에 依하야 人氣幾分安定되고 鐘紡에는 北中進出에依한 鐘新拂込期待、電力國有問題에 對한 理解가잇는것、齋藤의賣退가잇는것等으로 賣方의 退卸市勢가 總觀되어今前場東新은 百二十七圓七十錢(東京)으로 新高價上進이고 鐘新百四十六圓六十錢에 强調이엇다。

後場頭重
後場은 二十九圓三十七錢에 三丁低로 始場後二節三十六錢 三節三十九錢 五節三十七錢으로 細제이다三十七錢에止場하다

岐路에서彷徨
分岐는來月?

東京의事態을 지난後 今月二日에 立會를開하자 誕生되新甫五月限은二十八圓七十八錢인卽三十餘丁의反落을告하얏後鮮의短貯가解除되엿슴에도 依然產地의賣物이 稀薄하얏을 機로한 有力側의 買進으로 約百丁의 反騰을示하자 日本內地米의三月一日 現在殘存激減을 加味하야 九圓八十五錢까지奔騰하엿섯다 此時에는 賣派의利喰賣物과 田中、山崎、馬場等有力側의 賣物이續出하야 反히低落途程의로 轉換되고잇는 때 高價에서 六十餘丁의反落을示하고는 國而[illegible] 日을費하엇인데 目前의 現象으로 보아서는 產地의賣物이 稍漸現出하야 [illegible] 하는側이 [illegible] 成할수도업고 [illegible] 奧地出廻가 [illegible] [illegible]

期米 幾分强含
商狀

前場反高 再昨後場의 阪地三十一圓五十九錢止와 共히 二十九圓三十二錢에 寄하야 止하는 當限은 一般今期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一圓五十五錢인 四丁反落

東京國債市場
(取引高 一四〇枚)

【東京電話電通】月末關係로 新規賣買는 적으나 各債共히 强하얏다

▲甲五分利 一〇〇、九五 ▲二回四分利 九九、九五 ▲佛貨四分利 一九〇、〇五

大阪四市場後休

大阪綿絲、棉花、人絹、砂糖四市場은 今前場으로서 納會되고後場부터 明日은 當限受渡로 休會이다。

今日財界 (三十日)

◆米

		(東位) 今日比
仁川期米 先限	二九、四五	下二
大阪期米 先限	三〇、六二	下三
◉三等米	一石	二六、二〇
正租(仁川)一等	二三、三〇	
京米一等白米宵品		

◆市中金融狀態

金 一斤 價 三等	(一分賣) 十二圓十錢 (一分賣)	十二圓十錢
錢	十五錢〇厘	十五錢〇厘

◆株

	今日比	(東位)
朝新	三二、六〇	下一〇
東新	一二七、〇〇	上二〇
日產	六七、五〇	下一〇
大阪綿絲(先限)	一八一、〇〇	
大阪棉花	三五、八〇	
大阪人絹	六三、二〇	
大阪砂糖	二〇、五〇	
現	[illegible]	
無	[illegible]	不變

增稅를 [illegible] 이번과 가튼 [illegible] 事件으로 [illegible] 今月은此邊에서 [illegible]

當限一代記

前方共히 [illegible] 彷徨[illegible] 今月은此邊에서 [illegible] 來月에入하야 어느便으로든지 分岐될것으로 觀測된다

新春劈頭에 二十九圓四十二錢에 發會되 新甫三月限은立春高氣分이 濃厚하야 三十圓〇六錢인 近年稀有의 高價를낸後 日本內地米實收高의 增加와 相殊하야 約百丁의 反落을 告하고 中限時代에 入하야도 [illegible] 十八圓七十錢을 示한後 二二六事件이 突發한後 一時賣氣旺盛하엿스나 結局은 產地賣物의 稀薄과 三月一日現在殘存米의 激減으로 三十九圓八十九錢의 高價를내고 六十餘丁의反落으로 結局二十九圓丁에 納會되엿다

朝米 取引 株
光皿
京城府黃金町二丁目
康益復商店
仁川府海岸町三丁目
金益證券株式會社
代表電話本局②五一八六番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當限受渡內容

▲渡方 [illegible]
▲受方 [illegible]

受渡石數 一〇、一〇〇石
受渡價格 二八、九〇錢

市場六感

株 休日을지난今前場은 商品高等으로 諸株强調이오 東新가튼것은 百二十七圓臺를돗는데▲一般의생각으는 世上이一轉機에잇스니 큰意味로는 株式은買할것이되고 市場心理를支配하는코로잇스나 市勢가平靜會低復코反撥中인마큼 弱氣도反는實하나 低價는實치안어 積極的이아니오▲그러타고 强氣로서 도자이제는 말노코사자하는사람도업서 이것亦是積極性이업다▲强弱雙方에 積極性이업는 이市勢의갈길은 어듸메뇨?▲이러케되면더 올느거던팔자다▲

米 今日은 阪仁共히當限戰의 最終幕을 告하는날임에도 何等의 波紋을 일으키지안는다 渡米의 威力도 相當하지마는 受方의態度도 頑强한모양▲阪地市場을 中心으로한 馬越老의渡米는 相當히 準備되모양이나 渡米를 斷行하기보다도 當先의縮縮로 乘賣實가 有利하고 또正米의 割高로 實米 그대로 實하기만 不如하다하야 渡米를 回避하는 觀이不無▲買方으로서는 潮先一派가 엇서 渡米하는것은 조곰도遜色이업시 受取하려하는光景▲그리고 當地는 丸ウ番 本營으한 力武精米所의 受米할것 이六千石、金太番中心으로 阪地潮先一派의 受取할것이 三千石으로 受方의勢力優越▲그래서 當地는二十九圓丁으로 今前場初付價에 比하야 十八丁이나 昂騰納會▲그러나 阪地는 三十圓八十二錢에 納會되엇스니 兩方의 威力이 相適한 모양▲何如間今月은 此邊에서 採合하다가 來月에入하야 當한分岐線을낼 모양이나 時日이나기다릴수밧게

시떠러지거던 사자는小利主義에傾키쉬울러인데▲特別議會서의政府의 政策具體化를 待할수바게업고 其後는低金利와增稅 統制經濟를材料로한波瀾市勢에入할모양일듯

堂島前場頑强

【大阪電話】當限受渡는 七萬四千九百石으로 이로서 馬越의持米는 一掃되려이오 受方은 潮先一派의 六萬五千石과 正米會이다 今朝는 環境의 小康으로 多少回復氣味이나 正米事情의前途觀測으로 買氣積極化지안으나 底意 意外로 堅調를 示하얏다 이제 示場의 主要賣買를 示하면 如左하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中限 ▲買方

[illegible]

各地當限受渡高

地	石數	價格
大阪	[illegible]	[illegible]
東京	[illegible]	[illegible]
神戶	[illegible]	[illegible]
下關	[illegible]	[illegible]
名古屋	[illegible]	[illegible]
京都	[illegible]	[illegible]
仁川	[illegible]	[illegible]
木浦	[illegible]	[illegible]

株式 期米
仁川府本町二丁目四
柳來恒商店
電話局 五一六、七三八、七七三
營業案內進呈

金·白·銀·金
買 賣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壹番地(小賣擴張)
電話本(2)三三一六番
振替京城壹五五四番
地方注文 代金引換買賣 送料先金

各地正米

京城少落
期米의 保合으로 賣氣가 [illegible] 傍觀이오 氣配五錢低唱인 丸仁三等二十八圓七十錢 四等二十八圓四十錢 一等白米二十一圓五十錢

仁川少落
期米의 保合으로 [illegible] 實行이 不振이오 强氣의 產地도 態度幾分緩和하야 唱은五錢引緩인 丸仁三等二十八圓七十錢 四等二十八圓四十錢 一等白米十二圓十錢

釜山引落
市場 賣物이 三千五百叺 休日後는 實物이相當하야 月末準備一巡과 定期伸惱등으로 買氣不添이오 採算側이 買漁할程度로 唱은十錢引落인 角ㇷ三等二十八圓五十錢 四等二十七圓八十錢 一等白米十二圓二十錢

群山同調
月末關係로 定期의 意外伸惱로 依然活氣가업고 專ら 雙方의 來月期待로 閑散裡에 保合인 菱ㇰ三等二十九圓丁 四等二十八圓 八十五錢 一等白米 十二圓八十錢

大邱不變
環境의 離側으로 買方의 氣가減하야 市況은 [illegible]

木浦少堅
依然 日本內地의 買氣不捗이나 期米의 好轉模樣으로 必需向의 好價買漁가散見되어 五錢高唱인 丸ホ三等二十九圓〇五錢 四等二十八圓八十五錢 一等白米 十三圓丁

金.白.銀.金
德
京城德力 地方注文 代金引換買賣 送料先立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5334
京城府明治町

玉蜀黍購入
五圓二十錢也(正味百斤付)
大同江驛着上等級 平壤府船橋里(大同江驛前)
日本穀產工業株式會社

金融 三十日

◆海外經濟 ◆對外爲替 ◆朝鮮銀行勢 ◆日本銀行勢 ◆京城市中金融 ◆金買入價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illegible]

商品 三十日

◆京城正米 ◆仁川正米大豆 ◆京城雜穀 ◆京城綿布 ◆東京雜穀 ◆日本麥粉市況 ◆滿洲商況 ◆大連特產市況 ◆豆油相場 ◆豆粕市況 ◆天津市況

[illegible]

朝取短期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東京現株 ◆大阪短期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鐘定代引日步

[illegible]

期米 三十日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朝鮮內各地期米 ◆大阪期米 ◆大阪正米標準 ◆大阪期米取組 ◆東京期米 ◆大阪市中在米高 ◆日本各地期米 ◆各地正租市況

[illegible]

商品 三十日

◆大阪綿絲 ◆橫濱生絲 ◆各地人絹 ◆大阪砂糖 ◆海外砂糖

[illegible]